



mécé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 메세나 | 2019 AUTUMN VOL. 108

+ THEME MECENAT
열정 움트는 메세나





저시력 어린이에게 맞춤안경을 제공하는 [효성 베트남 의료봉사 미소원정대]

함께 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부터
 세상 곳곳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미래를 위해
 효성의 손과 마음을 나눕니다
 더 많은 희망과 더 큰 웃음이 넘치는
 더 좋은 내일을 바라봅니다

HYOSUNG



사랑의 쌀 나눔



사랑의 헌혈



문화유산 보호활동



장애어린이 음악교육 프로그램



현충원 1사 1모역 봉사활동

FUTURE MINDS

PAL
SHOWCASE 2019

PARADISE ART LAB

2019.10.18 FRI - 11.03 SUN
@PARADISE CITY

KWON BYUNG JUN / KWON HA YOUN / KIM YUN CHUL / Loopntale / Mu:p
YULHYUL ARTS GROUP / LEE JANG WON / YANGACHI / CLOYP / TeamVOID



PARADISE
CULTURAL FOUNDATION

CONTENTS

열정 움트는 메세나

테마기획

칼럼 1

약동하는
충청 메세나

칼럼 2

강원도
메세나의 힘

인터뷰

전국화, 국제화로
문화예술의 허브를
꿈꾼다

인병택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포그래픽

한눈에 살펴보는
충청·강원
메세나 지도



메세나 통권 108호
발행일 2019년 9월 5일
발행인 김영호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13-31)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Tel. 02-761-3101~2
기획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
제작 디자인소호
가격 5,000원

홈페이지
www.meccnat.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ccnat.korea



작품_〈정지의 시작-2015-54〉 캔버스에 유채, 100x80cm, 2015년

세상은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낮과 밤과 같은 반대되는 개념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끊임없는 자기 부정을 통해 발전을 이루고 있다. 최승운 작가는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화면 위에 담아낸다. 작가는 파란색을 주로 사용하는데 파란색은 희망과 우울, 차가움과 뜨거움, 상반되는 개념을 상징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역동적인 붓 터치를 멈춤으로써 완성된 이 작품은 무한한 역동성을 뽐내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한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세상이 보이고, 그 세상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순간이 행복하다는 작가의 말처럼 감상자는 작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작가 최승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한 작가는 〈2019 Project Zebra(예술공간 봄)〉, 〈The midnight(Google, Sanfrancisco, USA)〉의 단체전과 〈2019 DRAW(L-갤러리)〉, 〈3(아트스페이스H)〉, 〈2018 101가지 개성(소노아트)〉, 〈수면위로 잠수(갤러리 자작나무)〉 등의 개인전까지 활발한 작품 및 전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계간 〈메세나〉는 신진 예술가를 널리 알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신진 미술 작가의 작품을 표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메세나 포커스

문화 CSR

함께하는 메세나

16 핫 이슈

국내 메세나 변화의 기로에 서다
2018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20 메세나 스토리

예술과 경제의 착한 시너지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이야기

22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술로 점철된 He, 스토리
이리리오 김창일 회장

26 해외는 지금

문턱 낮춘 예술작품 장보기
소비자작가 잇는 일본 스타트업

30 메세나 갤러리

여백에 응축된 거장의 예술혼
국립현대미술관 〈박서보 :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

34 얼리버드 페스티벌

올 가을, 떠나야 할 이유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 & 프랑스 파리 피악(FIAC)



22

36 메세나 가까이 보기

방방곡곡 음악선물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The Gift'

예술로 배우는 국어?
움직임으로 배우는 수학!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창의예술교육 교사 연수'

사회적경제 성공 모델로 비상
현대차 정몽구 재단
'2019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시상식'

국악체험과 미술체험을 동시에
크라온-해태제과 '2019 크라운해태 국악캠프'

촉감으로 완성하는 나만의 작품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인텐시브 아트캠프'

음악 통해 배우는 공동체 정신
한화그룹 '2019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캠프'

군세어라 청춘아~ 취준생 문화예술 캠프
GS칼텍스 '취준登高동락 3기 캠프'

44 기업-예술 파트너십

3년 지원의 결과물 한자리에
중근당홀딩스 '제6회 중근당 예술지상 기획전' 개최

러시아에서 온 특별한 손님
무대에서 만나요 〈2019 히엡눅크〉
벽산파워 & 세종솔로이스츠

문화예술 가득한 학교 밖 세상
충남문화재단 & 시티문화재단

빛 · 희망 · 위로의 음악 Music in the Dark
신세계백화점 & 한빛예술단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무대 〈올림#콘서트〉
올림푸스한국 & 세종문화회관

반전의 반전, 즉흥 연극 〈머더 미스터리〉
티제이티솔루션 & 극공작소 미방진

50 메세나 캠페인

문화 매개로 비즈니스 시너지 up!
문화예술로 인사하는 기업 눈길

52 회사사 뉴스

55 협회 소식

56 예술 살롱

2019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 MMCA 현대차 시리즈 2019

58 문화 캘린더

60 회원사 소개



41



55

한 곳에 터전을 일구고 삶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다보면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일상에 스며들게 된다.
산재해있던 문화예술 자원들을 응집시킨다면
대체할 수 없는 지역만의 예술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2019 <mecenat> 연중 기획으로 마련한
'지역으로 뻗어가는 메세나' 그 세 번째 이야기,
지역 특색 짙은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충청·강원지역 메세나 소식을 담아본다.



칼럼 약동하는 충청 메세나
글. 고주영(충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강원도 메세나의 힘
글. 허상희(강원문화재단 미래기획팀)

인터뷰 전국화, 국제화로
문화예술의 허브를 꿈꾼다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메세나 지도 한눈에 살펴보는
충청·강원 메세나 지도
글. 메세나 편집부

열정
움트는
메세나

충청·강원 편

약동하는 충청 메세나

칼럼 1

문화복지 실현하는 찾아가는 메세나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충청의 문화예술계에는 기업 참여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충청의 문화예술이 약동하며 날개를 펼치고 있다. 조용하고 느린 이미지로 인식되는 충청이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태동하는 충청의 메세나에 주목할 때다.



02

01
충남 신진예술가를 지원하는
하나투어의 COA Project

02
문화소외지역과
문화소외계층에 찾아가는
공연으로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시티건설



01

메세나 후발주자 충청의 비상(飛上)

메세나에 대한 충청지역의 관심은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됐다. 청주시문화사업진흥재단이 2011년 처음 메세나 사업을 시작했고 충남문화재단도 2017년 첫 발을 내디뎠다. 경남, 경기, 서울 등에 비하면 한참 늦은 후발주자인 셈이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파악하며 체계를 잡아간 충남문화재단은 본격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공기업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서천건설본부를 비롯해 민간기업인 하나투어, 하나투어문화재단, 시티문화재단, 벽산엔지니어링, 벽산문화재단, 현대자동차 등과 의기투합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13개 기업과 29건의 메세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전적 성과를 일궜다. 충북문화재단 또한 벽산문화재단과 문화공헌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청주시문화사업진흥재단 역시 지역 기업과 연계해 청주국제비엔날레 후원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메세나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기업의 상생과 가치 확산

아직 충청지역은 기업보다는 지역문화재단을 주축으로 메세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메세나에 대한 인식이 없던 기업들이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건수가 늘고 있어 머지않아 기업이 능동적으로 메세나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물론 이미 도내 기업과 지역문화예술이 함께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시티건설은 지역민에게 기업이윤을 공헌하기 위해 시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2018년 충남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꾸준히 충남의 문화예술 및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소외지역과 문화소외계층에 찾아가는 공연을 선사할 뿐 아니라, 충남무형문화재 활성화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 충남의 문화예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여행기업 하나투어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충남의 신진예술가를 지원하는 COA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장래성과 독창성은 있으나, 공연 및 전시의 기회가 적은 충남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여행을

통해 영감을 제공하고, 작가들이 그 영감을 통해 창작물을 제작해 공연 또는 전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관이 메세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예술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충남의 많은 예술가들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새로운 시도는 2018년 예술경영컨퍼런스에서 우수 경영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인정받았다.


충남 소재 기업 애타미(주)는 2018년부터 '꿈의 오케스트라, 공주' 교육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중부발전(주) 서천건설 본부는 매년 서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현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벽산문화재단이 충북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문화공헌 활동으로는 문화소외지역 내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클래식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세대를 아울러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위 사례들은 지역문화예술이 앞으로 그 가치를 더 많이 실현하는 데 기업이 훌륭한 파트너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속가능한 메세나 환경조성 필요

예술단체 및 작가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도내 기업의 메세나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지원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의도임은 이해하지만 진정한 메세나는 책임과 신뢰, 지속적이고 안정된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과 예술단체가 장기적으로 협력할 때 그 가치를 발하게 된다.

충청지역의 메세나 활동이 일회성으로 종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과 기업, 기관의 연계성 있는 플랫폼 개발 등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도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활동을 보여줘야 비로소 지역+기업+문화예술이 시계 속 톱니바퀴처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부는 충청의 메세나 바람이 더 큰 메세나 진흥의 불길을 일으키기를 기대한다. 



지역과 문화예술계에서도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활동을 보여줘야 비로소 지역+기업+문화예술이 시계 속 톱니바퀴처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강원도 메세나의 힘

칼럼 2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 콘텐츠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관광지역에 특화된 강원도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재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관광과 예술을 결합해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도 엿보인다. 문화소외지역을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향한 의미 있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7월 31일~8월 10일까지
알펜시아 콘서트홀과
강원도 일대에서 펼쳐진
평창대관령음악제 포스터



메세나의 결실, 평창대관령음악제

강원 메세나의 대표 사례를 꼽자면 단연 평창대관령음악제다. 매년 여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올해 벌써 16회를 맞았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 참여는 척박한 강원 메세나의 희망이자 가능성이다.

줄리어드 음대 강호 교수의 수준 높은 예술적 역량으로 출발한 이 음악제는 2005년 제2회부터 신한은행의 기부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대원문화재단, 동성코퍼레이션 등 20여 개 기업들의 참여로 이어져 왔다. 그리고 지원된 기부금들은 국내외 저명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수준높은 연주회와 음악학교 개최 비용으로 쓰여, 음악제를 찾아준 관객과 학생들에게 되돌려졌다. 이들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부는 음악제 재정 운영에 한 축을 담당하며 음악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키워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간 음악제에 기부참여를 했던 기업가들이 모여 자발적인 음악제 후원 조직인 더프렌즈(The Friends)를 결성해 힘을 보태고 있어, 활성화된 메세나 활동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축제와 함께 하는 메세나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예술세상 마을프로젝트'도 의미 있는 사례다. 재단은 지역 문화축제 및 예술교육을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고 지역민의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군 산골마을인 계촌리를 '클래식 마을'로 선정했다.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는 지역 문화축제와 예술교육을 접목시킨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2015년부터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출신 강사들의 학교 오케스트라 레슨 지원과 악기 지원 등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마을주민들은 '계촌클래식축제위원회'를 조직해 주민자치 중심의 계촌 클래식 마을 만들기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사회공헌 가치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해 강원도 평창 산골마을에 투영되면서 강원도 산간 마을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벽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소외지역 개선 일환으로 강원문화재단과 함께 학교 공공벽화 프로젝트 '스쿨 체인지업'과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소외된 예체능과목 활성화를 위한 '넥스트 클래식' 사업

02



을 펼쳐 지역에 생생한 예술적 체험을 선사했다.

오래 전부터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이어져 온 춘천마임축제와 현대백화점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춘천마임축제'는 2017년부터 직접 제작한 공연을 전국 현대백화점에 선보이고 있다. 축제 아이템이 기업 활동과 연결되면서 차별화된 춘천만의 문화예술 콘텐츠로 더욱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듯 기업과 지역 예술축제의 콜라보레이션은 지역과 기업, 예술가가 서로 윈-윈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끌어낸다.

한편 강원지역에 뿌리내린 토종 메세나를 언급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곳이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다. 하이원리조트가 민간기업으로 처음 추진한 공미술프로젝트 '아트 인 빌리지'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 예술가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환경 개선 프로젝트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된 뒤 현재는 폐광지역의 도시재생프로젝트로 개념을 확장해 진행되고 있다.

춘천 상상마당을 통해 예술인과 일반인 모두에게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KT&G, 원주에 뮤지엄 산을 운영하며 문화예술분야의 공헌활동을 펼치는 한솔그룹의 한솔문화재단도 강원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십시일반 구심점 만들어야

기업 후원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 활동은 아니지만 춘천에는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춘천아트페스티벌'이 있다. 공연자, 기획자, 기술 스태프들이 모여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지역에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이 축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열 사람이



지역 기업과 예술단체, 기관과 지자체, 지역민이 십시일반의 협력모델이 필요할 때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의 십시일반(十匙一飯)이다. 척박한 강원지역의 메세나 활동을 넓혀가는 과정도 십시일반이지 않을까 한다. 지역 기업과 예술단체, 기관과 지자체, 지역민이 십시일반의 협력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크고 작게 강원도 지역 문화계와 기업이 꾸준히 의미 있는 동행을 하고 있으며, 메세나에 대한 인식도 확장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확장하고 구조화 할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실천을 해야 할 때다. ▣

01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주최로 5회째 이어진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무대

02

현대백화점 등 기업과의 콜라보 콘텐츠 제작능력을 인정받은 '춘천마임축제'

전국화, 국제화로

문화예술의 허브를 꿈꾼다

인병택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세종시문화재단은 지난 2016년, 전국 17개 지역 문화재단 중 15번째로 출범한 후발주자다. 그러나 행정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의 문화예술 수요를 아우르며 공연·전시뿐 아니라 예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사업,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등에 메세나 활동을 적극 도입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문화재단으로 거듭났다. 올해로 출범 3주년을 맞은 세종시문화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지 궁금해진다.



세종시문화재단이 시민과 함께한 지 3년째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주세요.

세종시문화재단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설립한 문화예술 기관입니다. 2016년 11월에 설립돼 그동안 지역주민과 예술가, 예술단체들의 도움으로 성장해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 세종시문화재단의 목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세종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이었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 때문에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진행해 많은 시민들이 우리 재단을 통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7년에는 세종시민 4명 중 1명이 참여했다면 2018년에는 3명 중 1명이 참여했고, 올해 추산은 2명 중 한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 예술가·단체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공모심사제도를 만들고, 이에 지역 예술가들이 많이 호응해주어서 지금은 지역 예술가·단체와 협력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래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민락(與民樂) 콘서트와 여민락 아카데미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여민락 콘서트는 서울의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되는 11시 콘서트를 벤치마킹하고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11시 콘서트는 오랫동안 진행해오면서 활성화돼 있고, 한화그룹에서 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지역 문화재단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범 충청권의
문화예술 상생 발전을 위한
플랫폼으로 역할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한 사례죠. 그런데 2017년에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려고 보니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라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민간 펀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우리가 메세나에 눈을 뜬 계기가 됐죠. 여민락 콘서트를 지금까지 진행해오면서 한국메세나협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를 통해 작년엔 5천만 원, 올해엔 8천5백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덕분에 좋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할 따름이죠.

2017년 4월부터 시작해 한 달에 한 번씩, 누적 관람 인원이 1만4천 여 명을 넘습니다. 우리 공연장과 시 규모로 볼 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공연 만족도도 5점 만점 기준 4.9점에 이르면서 세종시문화재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민락 아카데미도 예술의전당의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2017년에 4개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올해는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간 누적 수강 인원이 1만3천 명에 이르고, 이러한 것이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죠. 세종시문화재단 출범 이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이 여민락 콘서트와 여민락 아카데미를 들 수 있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이 소재한 세종시와, 지리적으로 연결돼 있는 충청권과의 연계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전체와 공주군 일부 지역을 편입해 탄생한 지역입니다. 17개 광역시도의 일부이지만, 위치로나 정서적으로 충청권과 동고동락하고 있지요. 동쪽으로 충북 청주시, 남쪽에는 대전광역시, 서쪽에는 충남 공주시, 북쪽에는 충북 천안시로 둘러싸여 있어요. 행정적으로는 세종시청과 대전시청, 충남·충북도청 등 4개 광역단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으로는 7개 문화재단이 있죠. 그래서 이들 문화재단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범 충청권의 문화예술 상생 발전을 위한 플랫폼으로 역할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논의가 시작됐는데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단도 충청권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화, 국제화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잘 추진해야 하는 이유죠.



01



02

계획돼 있습니다. 우리 음악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9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미디어 행사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세종시의 대통령기록관에서 '세종대왕과 음악, 황종(黃鍾)'이란 주제로 세종대왕의 음악적 업적을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국제전시회로 발전시켜 국내외 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전시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종대왕의 문화적 성취를 조명하는 국제심포지엄(10월 8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파인'이란 한글 이름을 만들 정도로 한국 전통음악에 정통한 음악학자 로버트 프로바인(미국 매릴랜드대학 명예교수)와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이 참여해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다양한 사례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예술공연단이 해외로 나가 공연을 펼치는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본궤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구이저우성의 전통가무악팀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공연단이 세종축제 기간 중에 내한해 공연을 가졌고, 올해에는 터키 앙카라의 민속공연팀이 세종시를 찾아 세종축제를 빛내게 됩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도 공연단을 꾸려 중국과 말레이시아, 터키에서 공연을 가지게 되는데, 벌써 8개 팀이 공연을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해외 공연을 마치면 우리 공연단의 보람과 긍지, 자부심이 매우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내에서 메세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소개해주세요.

설립 이후 초기에는 문화예술 환경이 매우 척박했습니다. 당연히 메세나에 대한 인식도 전무하다시피했습니다. 여민락 콘서트를 시작할 때도 예산 확보를 위해 세종향토기업인 (주)일미농수산물과 여러 기업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죠. 그렇게 모으고 모은 메세나기금 1억 5천5백만 원으로 2017년에 9회의 공연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메세나 활동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2억 7천만 원이 모였고, 올해에는 5억 원 가까이 메세나기금이 확보됐습니다. 물론 한국메세나협회의 지원을 포함해서지만, 지역 메세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충청권을 뛰어넘어 전국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전국화, 국제화를 위해 세종시문화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여민락 교향시 창작 음악회'를 들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여민락을 만드셨을 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여민락이란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이죠. 이 여민락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음악을 선보여 후세에 이어지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음악평론가 최은규, 작곡가 이신우(서울대 교수), 세종솔로이스츠와 의기투합해 여민락 교향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미 올가을에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10월 4일에 세종축제 전야제 때 초연하고, 10월 5일 세종축제 개막식 때 축하공연으로 연주됩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서울 예술의전당 IBK체임버홀에서, 10월 29일에는 연주단체를 달리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공연됩니다. 또 11월 21일에는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카네기홀에서 뉴욕시민을 대상으로 해외 공연도

01-02
지역을 넘어 국내외 예술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세종시문화재단의 기획 공연들©세종시문화재단

최근에는 '여민락 공익 펀드'를 구성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신진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활동하다가 가족을 따라와 경력단절된 여성 예술가들이 특히 많습니다. 이러한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위해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어려워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공모를 통해 올해 5천만 원 예산으로 8개 개인·단체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처음 만드는 거라 예산도 적고 수혜 개인·단체 수도 적지만, 지역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어 다행이죠. 앞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면 메세나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메세나협회에 특별히 제안할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메세나협회와 협의해 연내에 세종메세나협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한국메세나협회의 컨설팅을 받아 우리 재단이 출범 초기에 행정적인 업무를 맡고, 이후에는 세종상공회의소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죠. 지금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조만간 결과가 도출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제안할 내용은, 첫 번째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메세나를 연계시킨 여민락 공예 펀드와 같은 신

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1:1 지원이라면 더없이 좋겠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인지도를 가지려고 하는 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을 연고로 한 회원사들과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원사들이 각자 소재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지역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면 좋겠죠. 한국메세나협회가 지역 메세나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담당해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근래에 세종시의 문화예술 심장이 될 세종아트센터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가요?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활동 중이고, 1,071석 규모에 1,050억 원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정된 대로 2021년 건립이 되면 우리 재단도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스마트 문화재단으로 면모를 일신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재단은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 변화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 일자리 창출과 메세나를 연계시킨 여민락 공예 펀드와 같은 신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인지도를 가지려고 하는 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눈에 살펴보는 강원·충청 메세나 지도

인포그래픽

• KT&G 상상마당 춘천 아트센터

하슬라아트월드 •
알펜시아 콘서트홀 •

• 원주 뮤지엄 산

• 하이원리조트

• 성마루미술관

• 아라리오 갤러리

• 웨마미술관
• 우민아트센터

• 청암아트홀

원주 뮤지엄 산

- **개관** : 2013년
- **협력기업** : 한솔그룹
- **특징** :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스케치북에 옮긴 드로잉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을 현실화시킨 이국적인 공간으로, 박수근, 김환기, 이혜대, 이종섭 등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주소** :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오크밸리2길 26
- **홈페이지** : www.museumsan.org

KT&G 상상마당 춘천 아트센터

- **개관** : 1980년
- **협력기업** : KT&G
- **특징** :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 예술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2014년 재개관 컨벤션, 공연장, 스튜디오, 갤러리 등을 갖추고 지역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폭넓게 지원
- **주소** : 강원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99번길 25
- **홈페이지** : www.sangsangmadang.com

알펜시아 콘서트홀

- **개관** : 2010년
- **협력기업** : 강원도시개발공사
- **특징** : 해마다 평창대관령음악제가 개최되는 곳으로, 국악을 비롯한 연주회 및 오페라, 연극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술 장르를 총망라해 무대에 올리며, 소극장만의 섬세한 감성과 대형 공연장의 웅장한 스케일을 동시에 만족
- **주소**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25-3
- **홈페이지** : www.alpensia.com

하슬라아트월드

- **개관** : 2003년
- **협력기업** : 하슬라아트월드
- **특징** : 자연과 사람, 예술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며 호텔과 미술관, 야외 조각공원을 결합시킨 종합예술공간. 다양한 콘셉트의 전 세계 작품들을 연중무휴로 전시
- **주소** : 강원 강릉시 강동면 울곡로 1441
- **홈페이지** : <https://museumhaslla.com>

하이원리조트

- **개관** : 2003년
- **협력기업** : 강원랜드
- **특징** : 문화리조트를 표방하며 국내외 관광객과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시즌별로 진행
- **주소** :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 **홈페이지** : www.high1.com

아라리오 갤러리

- **개관** : 1989년
- **협력기업** : (주)아라리오
- **특징** : 2002년 현재의 공간에 재개관한 이래 천안, 서울, 제주, 중국 등에 갤러리를 운영,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속작가 시스템으로 작가 역량 향상과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 **홈페이지** : www.arariogallery.com

청암아트홀

- **개관** : 2016년
- **협력기업** : (주)청암
- **특징** : 세종시민의 문화 복지를 위해 개관한 곳으로 전시, 강연,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무료로 대관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5층
- **홈페이지(대관 신청)** : www.sipost.co.kr

성마루미술관

- **개관** : 2007년
- **특징** : 충주 최초 사립미술관으로 서예, 한국화, 서양화, 유화, 도자기 등 연중 무료전시를 진행하며 부대시설로 심터, 연못, 수목원, 야외전시관, 산책로, 등산로 등을 갖춘 문화예술공간
- **주소**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장성길 38-1
-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sungmaruart>

웨마미술관

- **개관** : 2009년
- **특징** : 서양화가 김재관 교수가 지역 예술인들과 지역민들의 예술적 교감을 위해 설립한 사설 미술관. 지역 작가 전시 및 유·청소년 문화예술체험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 **주소**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로 241
- **홈페이지** : <http://schemaart.net>

우민아트센터


- **개관** : 2011년
- **협력기업** : 우민재단
- **특징** : 한국 현대미술 전시를 비롯해 신진작가 발굴 워크숍,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무료 진행. 지역 작가와 기획 매개자들의 기획전시 및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 지원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우민타워
- **홈페이지** : www.wuminartcenter.org

숫자로 보는 충청·강원 주요 문화예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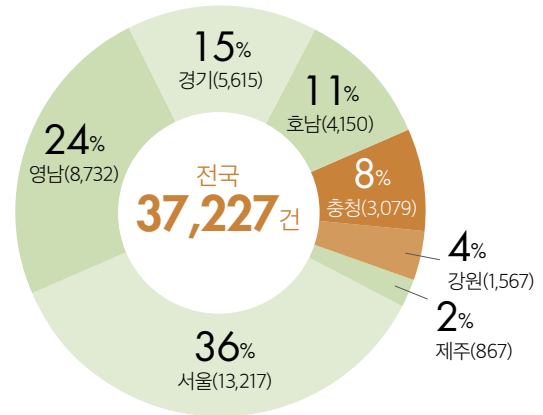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표한 <2018 문예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7년(최근 조사완료 기준) 17개 시·도 문화예술 활동 건수에서 충청과 강원 이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미술관·공연장 총량에서도 충청지역과 강원 지역이 중 하위다.

하지만 지역별 문화예술 관람률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8월~2018년 7월까지 조사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전국 평균(78.3%)로, 강원 이 89.5%, 충청이 충남·충북 평균 87%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가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92.2%를 기록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서울(90.0%)보다 높은 수치다.

2017년(최근 조사완료 기준) 인구 대비 문화예술 활동 조사 결과에서는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강원도가 서울과 제주 다음으로 인구 대비 문화예술 활동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악과 연극 등이 서울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충청·강원 주요 문화예술 활동은 공통적으로 전시(시각예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음악 활동, 연극, 무용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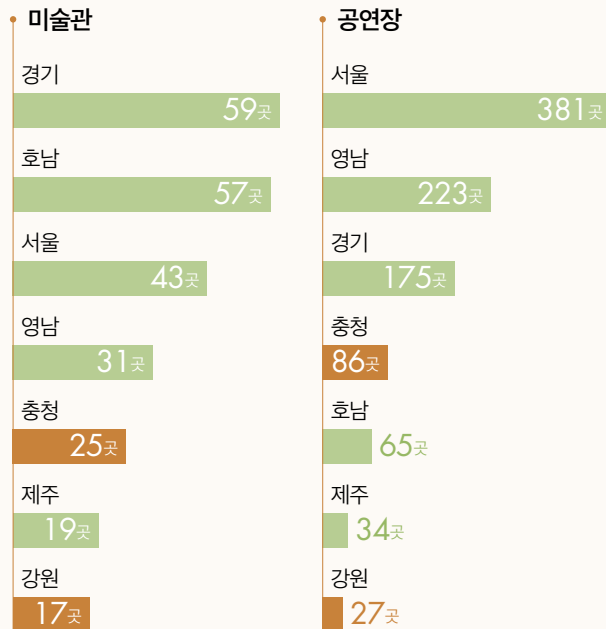
지역군 별 문화예술 활동 건수(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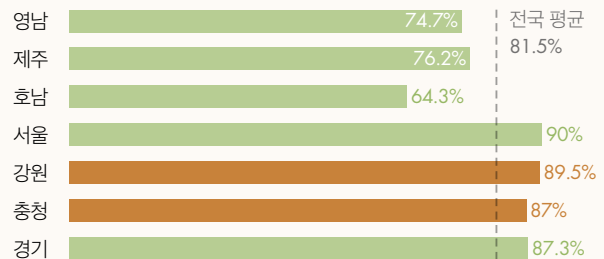
※용례

- 경기: 경기·인천 통칭
- 호남: 전북·전남·광주 통칭
- 영남: 경남·경북·울산·대구·부산 통칭
- 충청: 충남·충북·대전·세종 통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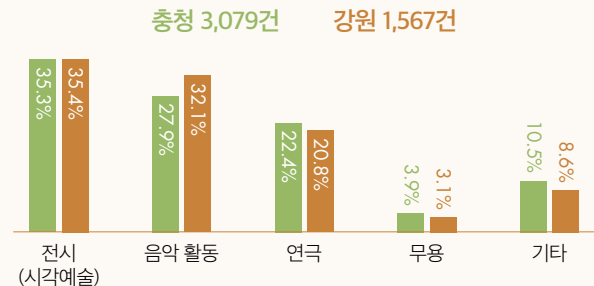
전국 미술관·공연장 총량(2017)



지역군 별 문화예술 관람률(2017~2018)



충청·강원 주요 문화예술 활동(2017)



*출처: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내 메세나 변화의 기로에 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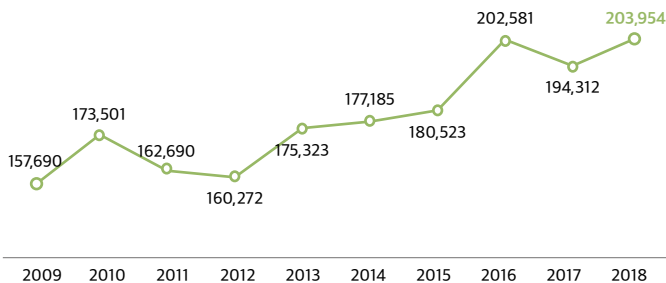
2018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소수의 대기업·문화재단에 집중된 예술지원, 중소·중견기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 참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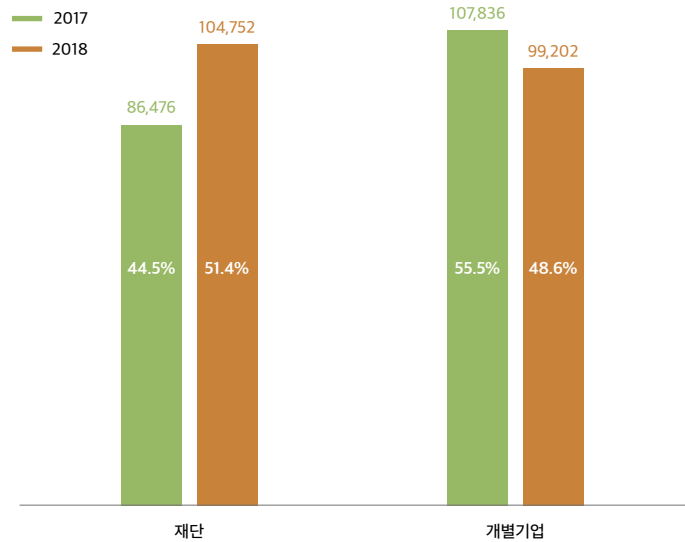
한국메세나협회는 2019년 3~6월 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및 기업 출연 문화재단, 협회 회원사 등 총 645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8년도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총액은 2,039억 5,400만 원이며, 지원기업 수는 515개사, 지원건수는 1,337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대비 지원 총액은 5.0%(96억 4,200만 원) 증가했으나, 지원건수와 지원기업 수는 각각 5.6%, 3.2%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지원 총액의 증가는 주요 문화재단들의 문화공간 추가 개관에 따른 인프라 운영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문화예술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9~2018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단위: 백만원)



이번 조사에서 기업 출연 문화재단을 통한 지원금액이 2017년 대비 182억 7,600만 원 증가, 전체 문화예술 지원 총액의 51.4%(▲6.9%)인 1,047억 5,200만 원을 차지했다. 2000년대 초반 30% 대에 머물던 재단의 지원 비중이 2012년(40.6%)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처음으로 전체 지원 총액의 과반수를 넘어선 것이다. 반면, 문화재단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86억 3,400만 원(▼8.0%) 감소한 992억 200만 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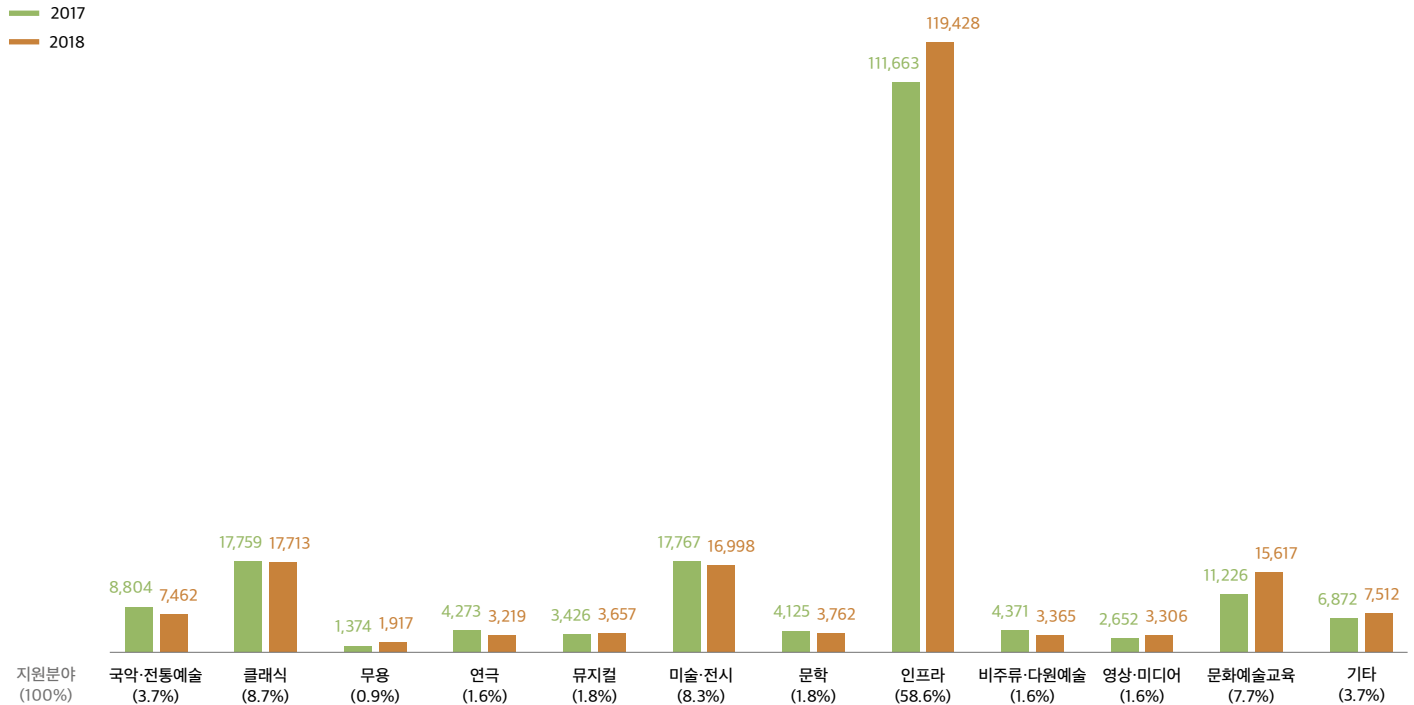
2017년, 2018년 재단 및 개별기업 문화예술 지원 규모(단위: 백만원)



지원건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지원기업 수 역시 뚜렷한 변화 추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조사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 상위 20개 기업의 지원금액이 개별 기업 지원 총액의 80% 이상을 점유해 소수의 지원 주체에 의존적인 구조적 특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대기업 등 주요 문화예술 지원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경우 전반적인 문화예술 지원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술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예술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문화예술 지원에 관심과 의지가 있더라도 재정적 한계로 인해 참여가 쉽지 않아, 세제 지원 등의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2017년, 2018년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단위: 백만원)



대규모 문화공간 개관 등 인프라 중심으로 한 지원 경향 여전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인프라 지원금액이 1,194억 2,8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클래식(177억 1,300만 원), 미술·전시(169억 9,800만 원), 문화예술교육(156억 1,700만 원) 등의 순이다. 인프라에 대한 지원 규모(1,194억 2,800만 원)는 전년 대비 7.0% 증가하였고, 문화예술 지원 총액 중 58.6%의 비중을 보이며 기업의 지원이 가장 집중되는 분야로 나타났다. 인프라 지원 규모 증가의 주요 원인은 수도권 지역에 신규 개관한 대형 인프라에 대한 지원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오케스트라, 오페라, 합창, 음악축제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클래식(177억 1,300만 원) 분야는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지원이 활발한 분야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기업의 후원·협찬이 위축되어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기업의 지원 규모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미술·전시(169억 9,800만 원) 분야는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유통업계와 기업 운영 미술관 등이 진행하던 외부 대형 미술전시 후원, 미술 콘텐츠를 융합한 프로젝트 행사 등이 일부 축소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화예술교육(156억 1,700만 원) 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39.1%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상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소외계층 예술교육, 예술영재 장학사업 등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의 확대와 관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술 영재를 발굴·지원하는 사업들은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뮤지컬(▲6.7%), 영상·미디어(▲24.7%), 무용(▲39.5%) 분야는 전년 대비 지원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지원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국악·전통예술(▼15.2%), 문학(▼8.8%), 연극(▼24.7%) 분야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2016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비주류·다원예술(▼23.0%) 분야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는 기업의 지원 방식 다양화 절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는 한, 기존과 같은 현금지원만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문화접대비 활용 등 기업의 문화소비를 활성화해 간접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임직원들이 단축된 근로시간을 여가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직원의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한다면 내부 고객의 복지 증진 효과와 함께 예술단체 자생력 강화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메세나협회 김영호 회장은 “공연 티켓 등 예술 상품 구매를 통한 기업의 문화소비는 창의적인 기업문화 조성과 문화예술계의 자생력 강화라는 2가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는 기업의 지원 방식의 다양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예술과 경제의 착한 시너지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이야기



01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다.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를 둘 만큼 사회적경제가 이슈다.

자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사회적경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바탕이자, 건강한 문화예술 사업을 이어가는 동력이다.

사회적경제와 문화예술과의 만남

문화예술은 그 활동 자체로 개인적인 새로운 감각의 경험과 정서적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을 높이고 사회적 연대나 공동체적 의미를 형성한다. 따라서 끊임없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는 문화예술이 사회적경제와 맞닿아있을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문화예술은 고유의 가치 속성에 의해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거나,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하기 때문에 활동의 과정이나 결과를 놓고 사회적경제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문화예술의 영향, 효과보다는 활동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문화예술 조직이 본연의 미션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두고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면,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조직의 존립과 운영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회적 목적(사회문제 해결 등)이어야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대상, 목적, 필요에 따라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어떤 조직은 국가 혹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문화예술을 통하여 해결하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열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또 다른 조직은 지역 내 흩어진 문화예술 자원들을 발굴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지속적이고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사회적경제에서 문화예술의 활약은 현대차그룹과 정몽구 재단이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H-온드림 사회적 기업 창업 오디션 프로젝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나갈 사회적기업을 발굴 양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최근 개최된 UN 사회연대경제 컨퍼런스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8년간 총 211개의 사회적기업에 지원금과 경영 멘토링, 구매연결, 협력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총 1,42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전체 211개 기업의 5개 중 하나가 문화예술 기업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문화예술 분야 활동이 비교적 컸으며, '생활', '패션', '미디어', '출판', '디자인', '관광' 등 연관 분야까지 확장하면 전체 기업 중 문화예술 관련 기업이 40%를 차지할 만큼 활동의 범위는 다양하고 넓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의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사례

사회적기업 (주)에이드린

H-온드림 사회적 기업 창업 오디션에 참여한 기업 중 하나인 'a'dren'(이하 에이드린)을 소개하고자 한다. 에이드린은 문화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미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를 지갑 등 일상 속 디자인에 녹여내는 소셜디자인브랜드다. 이 기업은 보육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술봉사를 하면서 결과물 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 튀어나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한 이야기들을 디자인화해

01
현대차그룹과 정몽구 재단이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H-온드림 사회적 기업 창업 오디션 시상식 현장
©현대차 정몽구 재단

02
H-온드림 참여기업 중 한 곳인
(주)에이드린의 캠페인 이미지 ©에이드린



02



03

상품을 제작 판매한 뒤 수익금을 다시 문화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미술봉사로 돌려주거나, 아이들의 이름으로 국내외 어려운 어린이에게 다시 후원하는 선순환을 이끌어낸다. 최근에는 미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작업을 통해 일반 아동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소통과 교감 능력,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자신감은 물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양상블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클라리넷 앙상블 드림위드양상블은 발달장애 청소년을 전문 연주자로 성장시키고 전문 연주활동을 통해 직업재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주 및 강연, 장애인식개선 및 음악교육, 연주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내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8년 평창패럴림픽 전야제에서 초청공연을 진행했으며, 같은 해 SK그룹의 사회성과인센티브 최종 기관으로 선정, 제5회 우수 사회적기업어워드 수상,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포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03 미술 교육 콘텐츠로 미술봉사와 후원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썬에이드런 활동 ©에이드런

04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클라리넷 앙상블 드림위드양상블의 무대 ©드림위드양상블



04

영국 사회적기업 카페 아트(Cafe Art)

영국 사회적기업인 카페 아트(Cafe Art)는 노숙자들이 그린 그림을 지역 카페에 전시하고 판매하거나, 노숙자들의 사진으로 콘테스트를 열어 입상한 사진으로 달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My London)를 펼치고 있다. 노숙자들이 이러한 예술 활동을 통하여 감정적 위안과 함께 자신감을 얻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노숙자들을 돕는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자립을 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노숙자를 대상으로 오페라를 위한 노래와 연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오페라 공연에 직접 참여하면서 평범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영국 사회적기업 '스트릿와이즈오페라(Streetwise Opera)'도 비슷한 사례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 활동은
민간 기업에서부터 지역사회, 정부,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응원과 지원으로
완성되고 발전될 수 있다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노력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동의 극히 일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화예술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메세나협회 등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곧 시행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영역에 활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동의 긍정적인 결과를 인정하는 것에서 이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단계로 넘어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 활동은 해당 조직만 분주하게 뛰어다닌다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 사례 모두 민간 기업에서부터 지역사회, 정부,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응원과 지원으로 완성되고 발전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화예술 활동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 생산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두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위해 우선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을 이야기하고 싶다. 해외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나, 한국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원봉사 인력 활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13.9%만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자원봉사 활동처로 인정해주고, 개인 혹은 기업의 자원봉사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자원봉사가 가능한 환경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기부활동을 확대·인정하자는 제안을 해본다. 현재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고유목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 범위로 인정하고, 세액공제 및 손불산입 혜택 등을 주는 등 적극적인 기부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인정해주는 세제개선을 고려해볼 수 있다. ■

김창일



2년마다 개인전을 여는 작가란 흔치 않다. 하물며 본업이 사업가라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지난 5월부터 10월 13일까지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10번째 개인전 <보이스 오브 하모니>를 선보이는 김창일 아라리오 회장 얘기다. 천안에서 종합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그는 데미언 허스트, 제프 쿤스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4천여 점 보유한 세계적인 컬렉터다. 4개의 갤러리와 4개의 뮤지엄을 지었고, 20년 전부터 ‘씨킴(CI KIM)’이란 이름으로 왕성한 작가 활동까지 하고 있다. 도대체 그의 정체를 뭐라 정의하면 좋을까. ‘기업과 예술의 자용동체’쯤 될까.

예술로 점철된 He,스토리

아라리오 김창일 회장



캔버스에서 움직이는
선과 색들이 마지막엔
화음처럼 연결되더군요.
재료들의 하모니,
선과 선의 하모니,
색과 색의 하모니를
다 모아 본거죠.



○ 첫 번째 He,스토리 예술가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에 구수한 커피향이 감돌고 있었다. 녹슬고 부서진 냉장고가 누워있고, 벽에 걸린 카펫에는 즉석밥 종이컵, 잡지책, 초콜릿까지 달라붙어 있다. 블루베리를 잔뜩 붙여놓은 캔버스도 있다.

잭슨 폴록을 오마주한 듯한 화폭부터 커피원액을 재료 삼은 캔버스, 흔들리는 TV화면을 찍은 필름 사진, 버려진 마네킹들까지. 종잡을 수 없이 다양한 스타일에 입이 떡 벌어진다. 혼란스러움도 잠시. '재료 실험', '자연스러움', '시간의 흔적', '생명과 영혼', '허상과 실상' 등 씨킴의 작업을 대표하는 키워드들이 동시다발로 소리를 낸다. 씨킴의 열 번째 개인전 타이틀이 <보이스 오브 하모니>가 된 이유다.

“오케스트라 50개의 악기에서 하나라도 음이 살짝 잘못되면 다 알잖아요. 작업도 캔버스에서 움직이는 선과 색들이 마지막엔 화음처럼 연결되더군요. 화음이 잘 안되면 작가가 미치는 심정을 알게 됐죠. 나는 그걸 극복했으니 이번에 그걸 주제삼아 봤어요. 재료들의 하모니, 선과 선의 하모니, 색과 색의 하모니를 다 모아 본거죠.”

그림 앞에 선 그는 천상 예술가였다. 자신의 작업을 소개할 땐 소년처럼 눈을 반짝였다.

“어린애처럼 단순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쉽진 않아요. 수량이 덜 되서 자꾸 손보게 되죠. 이번에 커피 작업에 관심들이 많던데, 사실 의사들이 커피를 못 먹게 하거든요. 그래도 좋아하니까 제일 큰 사이즈로 사요. 조금 먹고 남은 걸 작업실 카펫에 쏟아보니 재밌더군요. 커피를 붓는 높이에 따라 문양이 달라지죠. 한 색깔로 농담만 조절하며 단순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커피, 블루베리, 토마토 같은 식재료에서 버려진 냉장고까지 재료로 삼고 있지만, 재료 선택의 기준은 따로 없단다. 재료에 대한 실험이 곧 작업 자체란 것이다.

“실험을 통해 결과가 나오는 걸 쓰니까요. 사업을 40년 하면서 레스토랑, 터미널 개보수 작업을 거의 내가 했는데, 집 지으면서도 재료 연구를 즐겼거든요. 재료란 내 감정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표현할 것이냐를 찾는, 작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CJKTAM

◉ 두 번째 He,스토리 사업가

대학을 갓 졸업한 그는 불과 28살이던 당시 모친으로부터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사업을 물려받았다. 적자에 고정 지출까지 감당하기 힘든 이중고를 겪었지만 그의 젊은 패기와 남다른 사업 수완은 흑자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기적을 이뤘다. 2011년부터는 신세계백화점과 제휴해 충칭점 운영에 뛰어들었다. 덕분에 버스터미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꿈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로 이뤄졌고, 현재 이곳은 천안의 랜드마크이자 국내에서도 유례없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듯 경영을 전공한 사업가가 아티스트가 된 계기는 뭘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신내림 받듯이 그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어려서부터 문제아였죠. Why?라는 질문이 늘 머리에 가득했어요. 병이라고들 했지만 나는 선물이라 생각해요. 사업이건 예술이건 배운 적이 없거든요. 내 머리 속 우주에서 나온 생각들이 나를 움직일 뿐이에요. 정체성 같은 건 몰라요. 장르에 갇히기도 싫고요. 아티스트로서 스스로 벽을 치는 일이니까요.”

말하자면 그는 사업가와 예술가의 DNA를 모두 가진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사람이다. 본인도 “양면성 때문에 미칠 뻔 했다”고 고백한다.

“오해를 많이 받아요. 사업가로서 고도의 전략과 전술이 있을 테니 예술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들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사업할 때와 예술 할 때 양면성이 잘 분리가 되죠. 철저한 명상과 사색을 통해 마인드 컨트롤한 결과예요.”

물론 초기에는 “내가 과연 예술가냐”는 질문 때문에 괴로웠다. 그를 구원한 건 마르셀 뒤샹이었다.

“뒤샹이 아니었다면 내 작품들을 밖으로 내놓지 못했을 거예요. 30여 년 전 뒤샹의 <fountain>을 보고 저게 어떻게 예술이 될까 고민했죠. 오랜 후에 결론이 났어요. 뭔가를 좋은 눈으로 선택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자체가 위대한 예술이라는 거죠.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레디메이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아트란 걸 깨달았고, 나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아날로그 사업을 하는데,
아트가 있는 아날로그와
없는 아날로그는 전혀 달라요.
우리 사업은 예술이 있기 때문에
잘되는 겁니다.



◉ 세 번째 He,스토리
예술후원자

<보이스 오브 하모니>는 그의 개인전이지만, 전시장 한 칸에 생동맞게 한 여학생의 공간이 있다. 도발적인 눈빛의 셀프 카메라를 비롯해 십여 점의 작품들이 작지만 꽤 그럴싸하다. 그리고 보니 아라리오는 국내 최초로 전속 작가 제도를 도입한 갤러리다. 무명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온 '예술후원자'가 그의 또 다른 얼굴인 것이다.

“예술이란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영혼을 주는 것이죠. 우연히 알게 된 친구데, 눈에서 살기를 봤어요. 그림 그리고 싶은데 공부를 시키니까. 아티스트 DNA가 있는 아이거든요. 내 전시에 방 하나 줄 테니 준비하라 했죠. 내가 콜렉션할 거예요.”

예술에 대한 그의 태도는 결코 조급한 적 없다. 콜렉션한 작품 값이 아무리 올라도 되판 적도 없고, 예술을 이용해 사업을 한 적도 없다.

“예술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빌딩을 지으려면 건축법상 10억짜리 조각을 갖다 놔야 하는데, 2~3억짜리로 속여서 갖다 놓는 사람이 있고 15억 주고 헨리 무어 조각을 갖다 놓는 사람이 있죠. 15억짜리가 지금은 100억이 되고 빌딩도 명소가 됐죠. 1년 앞만 보고 갖다놓은 싸구려 예술도 아니고, 그러

니까 사업도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사업가로 성공하는 데는 예술의 영향이 컸다. ‘아날로그 사업의 정점에는 예술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 그만의 예술경영을 이끈 것이다.

“1989년 터미널을 이쪽으로 옮길 때 생각한 게, 아름다운 꽃을 심으면 벌이 와서 꿀을 만들고, 더러우면 파리가 와서 병을 옮긴다는 거였죠. 아라리오는 그렇게 탄생했어요. 우리는 아날로그 사업을 하는데, 아트가 있는 아날로그와 없는 아날로그는 전혀 달라요. 우리 사업은 예술이 있기 때문에 잘되는 겁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라는 전인권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 20년간 하루 4~5시간씩 이곳에 틀어박혀 만든 작품의 종류와 수가 셀 수 없이 빼곡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다. 외부에서 전시 제안이 와도 왜곡된 평가를 받기 싫어 거절한다. 자신의 작업에 대한 평가는 오직 역사만이 내려줄 거란 확신에서다.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히스토리’입니다. 모든 선택의 결과는 역사에 의해 밝혀지죠. 나의 과거·현재·미래가 한 역사에서 이뤄진다는 생각이 내게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해요.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힌 뒤부터 남을 의식하지 않죠. 나의 총족감으로 하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고, 최선을 다하는 내 작업을 역사가 평가할 거라 확신합니다.”



문턱 낮은 예술작품 장보기

소비자 · 작가 있는 일본 스타트업



01

예술로 밥 먹고 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일자리와 일거리를 스스로 만들려는 예술가의 스타트업 도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잠재적 수요가 있다 해도 바로 시장과 직결하려면 시간이 요구된다. 예술 스타트업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다.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메인으로 하는 단기 프로젝트는 단순한 학습과 체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는 다르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익창출 모델을 두루 살펴야 한다. 수익창출을 목표로 단기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01 · 02

전 세계 27개국에 100여 개 매장을 둔 사진 전문 매장 옐로코너에서는 200여 명 전속 사진작가의 한정수량 작품들을 판매해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은 판매 실적을 올렸다.

미술품 직접 소장하는 일본 소비자 증가

일본 도쿄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오카 요스케 씨는 지난해 난생 처음으로 그림을 샀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접속한 트위터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레이터 다츠미 나오 씨가 그린 풍경화다. 다츠미 작가는 구글 스트리트뷰에 찍힌 전 세계의 풍경 중에서 맘에 드는 곳을 골라 이를 회화로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카 씨는 “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다”며 “바로 다츠미 씨에게 트위터로 연락해서 5만 엔에 그림을 샀다”고 자랑했다.

미술관을 찾고 즐기는 사람은 적지 않지만 직접 소장까지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사야하는지를 모르고 또 사려는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또 미술 작품이라면 일반인들이 가까이 하기엔 가격이 높을 것이란 선입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예술품을 직접 구입하는 사람이 늘게 된 것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해결된 덕분이 크다. 꼭 화랑이나 전문적인 매장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쇼핑의 현장에서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기에 일반인이라도 ‘한 번 사볼까’란 생각이 들 정도의 수준의 가격대에 정가까지 표시돼 있어 거부감이 줄었다. 처음 미술작품 구매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난해한 작품 보다는 일반인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일러스트, 사진, 조각 등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 전문 매장이 옐로코너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을 파고 들었다. 다나카 이사는 “CD나 책을 사는 것처럼 가볍게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장을 열 때부터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가격이다. 흔히 ‘아트샷’이라고 불리는 작품(40cm×50cm)의 경우엔 1만 엔 정도에 판매한다. 여기에 사진틀까지 더해 2만 엔 미만으로 판매하고 있다. 다나카 이사는 “슬쩍 한번 둘러보러 왔다가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변호사로 일하는 후지 사토시 씨는 자택에 일본 작가인 나카무라 잇세이의 작품을 10여 개 가량 걸어놓고 있다. 일본 전통 종이에 담담한 색채의 작품 위주다. 가장 큰 돈을 들인 것은 지난해 사들인 작품으로 30만 엔(약 300만 원)을 썼다. 후지 씨는 “옷 등은 잘 사지 않지만

그림은 계속 사들이게 된다”며 “작품 한 점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 브랜드의 커피메이커를 사는 것과 같은 식”이라며 “약간의 부담으로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말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른바 소확행이다.

사실 인테리어의 측면에서는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명 작품의 복제품(레플리카)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트렌드가 바뀌어 이제는 유명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작품을 소장하는 분위기다. 일본 문화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미술품 시장은 2천437억 엔(약 2조4천370억 원)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유명 제품의 복제품 시장 규모는 전년에 비해 24%나 줄었다. 한 점을 사더라도 진품을 택한다는 얘기가.

기부를 받은 아티스트는
매달 답례 차원에서 엽서나
자신의 작품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후원자와 소통한다

예술가 · 후원자 연결하는 스타트업 등장

예술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작가들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자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메세로(mecelo)'다. 예술가와 후원자를 연결해주는 스타트업이다. 후원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월 100엔(약 1000원) 이상이면 얼마든 가능하다. 기부를 받은 아티스트는 매달 답례 차원에서 엽서나 자신의 작품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후원자와 소통한다. 아티스트의 작품을 소장하고 싶을 경우엔 메세로를 통한 구입도 가능하다.

미술품 거래가 생소한 것은 고객이나 아티스트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메세로가 중간에서 가격을 조율해주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주는 등의 작업을 대행해준다. 또 작품을 구입한 고객이 직접 핑을 남기기도 한다. 온라인 쇼핑물의 고객 후기가 다음 고객의 구매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을 활용해 신규 고객들의 저항감을 낮춰주기 위해서이다. 지난해 4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아직 규모는 크지 않다. 현재 등록된 아티스트는 총 22명. 모두 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다. 메세로에서는 앞으로 후원자들과 작가들 간 네트워킹 이벤트를 비롯한 교류의 장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메세로 외에도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한 '스즈리 피플 바이 GMO페파보'나 '픽시브(pixiv)' 등도 모두 사업 내용 등은 비슷하다. 스즈리를 운영하는 GMO페파보는 도쿄중시 1부(코스피 시장에 해당)에 상장된 기업인 GMO의 자회사다. 스즈리는 먹을 기는 데 사용하는 '벼루'를 뜻하는 말이다.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대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 셈이다. 스즈리 피플 등의 경우에는 아예 작가에 대한 작업 주문이 가능하다. 픽시브의 경우 만화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내걸고 있다.

예술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곳도 늘고 있다. 도쿄 중심부인 니혼바시에 있는 다카시마야 백화점은 여성복 매장 곳곳에 미술품을 배치해 왔다. '아트 애비뉴'란 이름을 붙인 미술품들은 전시 목적도 있지만 주목적은 판매다. 다카시마야 니혼

바시점에 있는 기존 화랑에서는 수백만 엔 짜리 고가 작품들이 중심이지만 아트 애비뉴엔 1만 엔 전후의 작품들이 많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2개월 단위로 작품을 바꿔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주변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이나 가방 등과 어울릴 것 같은 작품들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반응도 좋아 지난해 8~10월 실시한 유리공예 작품은 '완판'을 기록했다.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프랑스 패션브랜드인 '아그네스비'는 지난해 12월 도쿄 명품 거리인 아오야마 거리에 매장을 내면서 2층에 갤러리를 만들기도 했다.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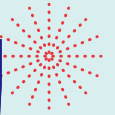
다카시마야 니혼바시점에서는 '아트 애비뉴'란 이름으로 신진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 쇼핑하듯 미술품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고객들 반응도 좋다.



03



이제는, 문화로 인사합니다!



품격있는 문화 선물, 고객을 위한 최고의 접대입니다.



'문화접대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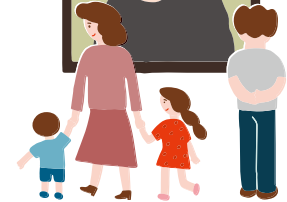
문화접대비 기업이 거래처 등에 공연, 전시, 스포츠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혜택 기업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접대 지출액을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감면 효과

예) 접대비 한도액이 1억 원일 경우 문화접대비로 2천만 원까지 추가 사용 가능
☞ 한도액이 1억 2천만 원까지 늘어나는 효과



문화접대를 하면 좋은 이유!



- 1 접대비의 건전한 사용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2 앞서가는 문화경영으로 직원들에게 문화예술분야 공연 및 강연 등을 제공하여 직장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3 거래처에 문화체험이라는 색다른 기회를 선사하여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 4 문화예술 수요 창출을 통해 문화예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접대비' 입력 방법

① 세목계정 등록

코드	세목명	구분	사용여부	과목코드	과목명	관계코드	과목명
81301	문화접대비	경비	0	81300	접대비		

☞ 접대비 계정과목에 문화접대비 세목계정 추가등록 [메뉴→세목계정 추가]



② 전표입력

<input type="checkbox"/>	일	번호	구분	코드	계정과목	코드
<input checked="" type="checkbox"/>	01	00001	차변	81301	문화접대비	00842
<input type="checkbox"/>	01	00001	대변	10300	보통예금	98102

☞ 비용지출 시 추가 생성한 문화접대비 계정으로 전표입력

※ 상품권 증정 이벤트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문화접대비 사용금액 입력 후 해당 페이지 캡처본을 한국메세나협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할 시 문화상품권 증정 이벤트 진행중

문화접대비 관련 문의 Tel. 02-784-0952 E-mail. bom@mecenat.or.kr 한국메세나협회 진보미

주관: 한국메세나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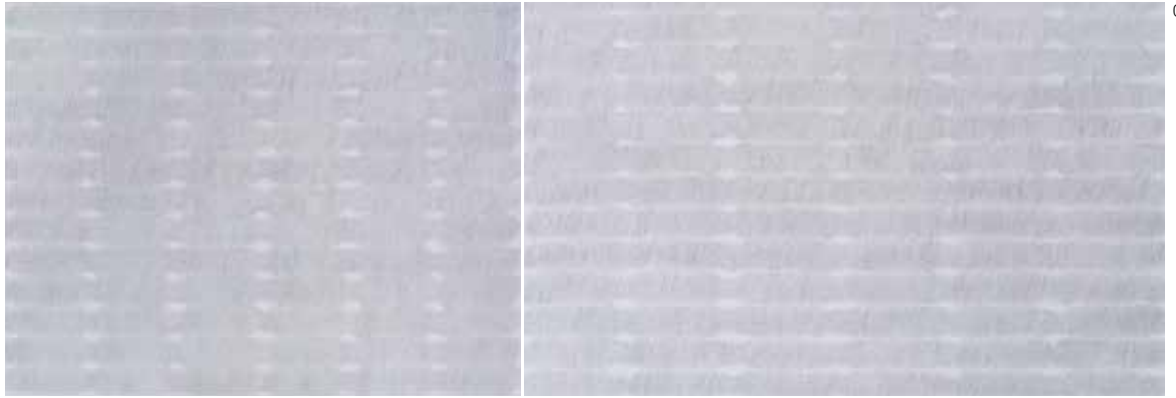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메세나 포커스
- 메세나 갤러리 -

여백에 응축된 거장의 예술혼

국립현대미술관 <박서보 :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





01
《박서보-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 전시 전경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02
박서보, 묘법(描法)
Ecriture No.190227, 2019,
130x170cm Pencil and oil
on canvas

03
박서보, 묘법(描法)
Ecriture No.190411, 2019,
130x170cm, Pencil and oil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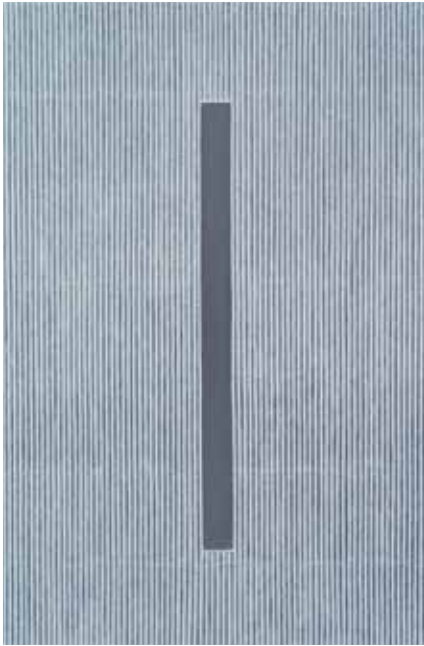
올해 초, 홍익대 부근의 한 화방이었다. 뒤에서 보건 멀리서 보건 그가 분명했다.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러워진 원로화가 박서보(1931년생)다. 지난해 말, 서대문구 연희동에 신축한 자택 겸 작업실이자 갤러리인 ‘박서보기지’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손이 불편해 이제는 작업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그였다. 그랬던 박서보가 물감을 고르고 있었다.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강행한 ‘화방 외출’이었다. 몸 가누기는 힘들지만 색은 직접 자신의 눈으로 골라야 한다고 노 화가는 고집을 부렸다. 그 고집은 거의 신념에 가까웠다.

개관 50주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선택한 거장 회고전

지난 5월 1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막한 <박서보: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 전시를 보고서야 그날 목격한 원로화가의 외출이 이해됐다. 작가의 70년 가까운 화업을 정리하는 회고전의 들머리에 놓인 작품 두 점은 최근 작업한 신작이다. ‘묘법(描法) No.190227’은 바닥에 연분홍색을 칠한 후 특유의 연필 묘법으로 작업한 것이고 ‘묘법(描法) No.190411’은 하늘색과 민트색의 중간쯤인 바탕색 위에 연필선을 반복적으로 그은 것이었다. 이제는 붓을 놓아도 충분히 ‘수고했다’ ‘위대하다’ 칭송들을 범 한데도 박서보는 그토록 멈출 줄을 몰랐다. 이번 전시의 부제가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인 이유다. 9월 1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에는 박서보의 신작은 물론 그간 한 번도 내보인 적 없는 미공개작과 대표작 등 작품 129점과 아카이브 100여 점이 선보였다.

전시 초반부는 박서보의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응축한 ‘묘법’ 연작이 채웠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를 관통하는 그의 초기 묘법은 일명 ‘연필 묘법’이라 불린다. 흰색이라기보다는 희끄무레한 색에 가까운 미색의 바탕을 먼저 칠한다. 캔버스를 덮은 희끄무레한 바탕색은 새하얗지도 않은 것이 눈이나 안개 같고 희뿌연 먼지나 잿빛을 닮기도 했으며 때로는 칠혹 같은 밤처럼 보인다. 그런 다음 물감이 채 마르기 전에 연필 권 손을 빠르게 돌려 화면을 가득 채워야 한다. 물감이 마르기 전에 모두 완성해야 했기에 한 번 시작한 작업은 끝날 때까지 멈출 수 없었다. 반복적인 선 굵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무아지경에 이른다. 숨 막힐 듯한 극한의 작업은 역설적이게도 관람하는 이에게 숨 쉴 틈을 열어준다. 그래서 박서보의 작품은 시간을 길게 두고 오래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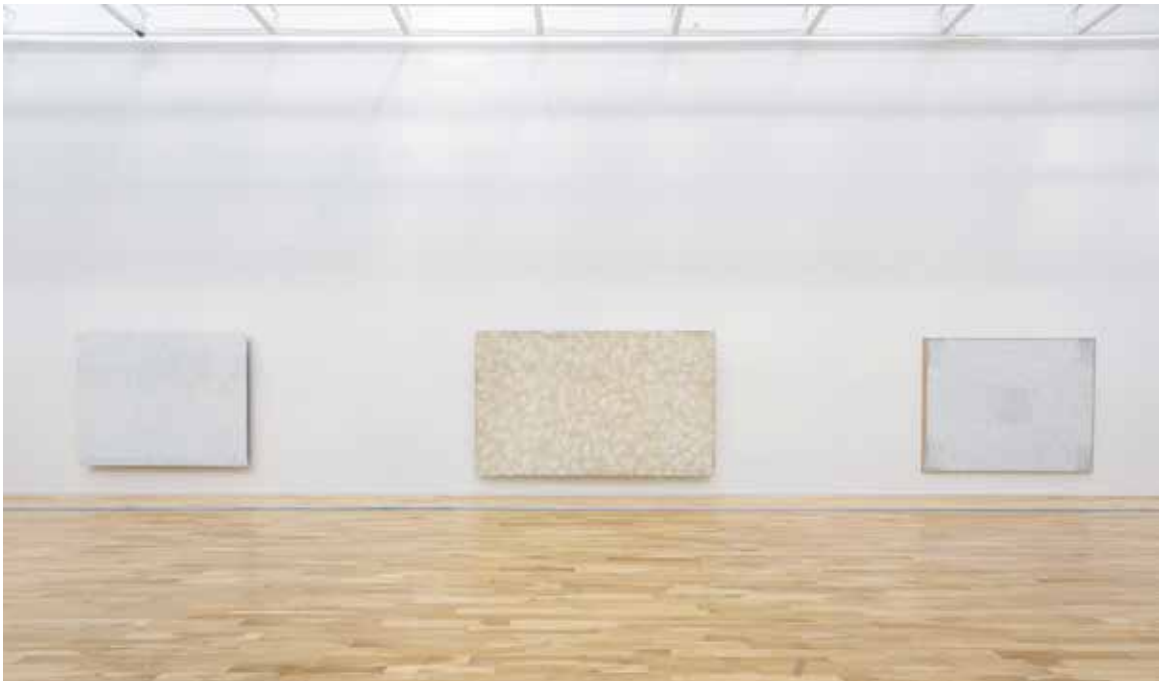
캔버스 채우는 '비움'



04

그림 앞에 한참 서 있노라면 눈(雪) 속에 내몰린 듯한 기분이 든다. 하염없이 훑날리는 눈이 온 세상을 뒤덮어 어느덧 여기가 어디인지, 시간은 얼마쯤 지났는지조차 기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눈을 치우고 밀어내도 이내 쌓이고 또 쌓이니 포기하고 그 안에 몸 맡기면 비로소 눈에 파묻힌 내 안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박서보가 '묘법'을 그릴 때의 심정도, 행위도 꼭 눈발의 사투 같았고 그 여운이 감상하는 이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진다. 사람이 아무리에 쓴다 한들 평평 쏟아지는 눈을 막아내겠는가. 부인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자연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그리려는 의지도 내려놓은 순간 '묘법'은 완성된다.

50년 이상 지속한 '묘법'의 탄생 배경이 꽤 흥미롭다. 젊은 나이에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가 된 박서보는 개혁에 앞장서다 미운털이 박혔고 결국 학교에 사표를 내고 만다. 1967년의 어느 날이다. 백수로 집에 틀어박혀 노자·장자의 책만 끼고 덩굴던 젊은 아빠의 눈에 둘째 아들이 띄었다. 네 살이던 둘째는 다섯 살 위 형의 공책이 궁금했던 모양이었다. 연필을 움켜쥐고 글자를 흉내 내 적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줄 안에 맞춰 적기도 어려웠고 잘못 그은 것을 지워보려 했지만 지우개질조차 서툰 손에는 버거웠다. 무엇 하나 뜻대로 되는 것 없었던 아이는 화가 났는지 종이 위에 마구 연필을 휘갈겼다. 아이의 연필질은 “관뒤, 나안 할래”를 외치는 체념의 몸짓이었다. 화가 아버지는 별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려는 게 아니라 그리지 않으려 연필을 휘두르는 그 모습에서 박서보는 “비움을 화폭에 구현할 방법”을 깨우쳤다.



05

04
박서보, 묘법(描法) Ecriture
No.080618, 2008, Mixed
Media with Korean
hanji paper on Canvas,
195x130cm

05
《박서보-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 전시 전경.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06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그러나 변하면 추락한다.”

- 박서보 -

단색에 담긴 팔색의 상념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의 회고전은 박서보의 작업을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누어 보여준다. 첫 번째는 ‘원형질’ 시기다. 전쟁 직후, 동급생 절반 이상의 죽음을 목격하고 살아남은 그의 세대가 겪은 불안과 고독, 불안의 정서를 표출한 그림들이다. 1957년작 ‘회화No.1’을 가리켜 작가는 스스로 우리나라 최초의 앵포르멜(Informel)이라고 했다. ‘앵포르멜’은 즉흥적 행위와 격정적 표현을 증시한 전후 유럽의 추상미술을 가리킨다. 앵포르멜의 영향을 받은 박서보의 초기 ‘원형질’ 연작은 어두운 색조의 짙든 추상 속에 비극적인 한국 근대사의 현실을 투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유전질’ 시기이다. 이 무렵 박서보는 외부 자극에 민감했던 모양이다. 1960년대 후반에 옵아트·팝아트를 받아들였고,

기하학적 추상에 한국적 오방색을 사용해 ‘유전질’ 시리즈를 선보였다. 그런 몸부림 끝에 나타난 것이 세 번째 ‘초기 묘법’ 시기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박서보는 ‘중기 묘법’ 시기로 접어들었고 작품은 ‘지그재그 묘법’으로 확장된다. 닥종이를 물에 적서 불린 다음 여러 겹 올리고 이 위에 물감을 칠한 다음 마르기 전에 굽어냈다. 일정한 길이와 간격의 선들이 이리저리 엇갈리며 지그재그를 긋는다. 양 손가락으로 벽을 긁을 듯하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고, 이 안에 살아 꿈틀대고 이리 뛰고 저리 달려들어 보는 생명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외치는 듯하다. 그런 박서보의 작품은 그렸다가보다는 긋고 새겼다 하는 게 옳고, 더 따지자면 그리는 행위를 지워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후기 묘법’ 시기에 이르러 작가는 손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렸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불려서 색 입힌 한지를 막대기나 자, 연필 뒷부분 같은 도구로 일정하게 밀어내 선을 만들었다. 비우고 비워낸 자리는 골이 패이고 밀리고 밀려난 자리에 한지가 소복이 쌓여 이랑을 이룬다. 밭 가는 농부의 마음이 담긴 작품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터져 나올 것만 같다.

박서보는 한국 ‘단색화’의 대표작가라 불리지만 정작 그 자신은 “중요한 것은 색이 아니라 행위일 뿐”이라며 단색화라는 이름 자체를 거부한다. 그가 좌우명처럼 자신에게,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그러나 변하면 추락한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을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으나 보다. 그는 이 말을 자신의 묘비에 새겨달라고 했다. ■■



07

06
박서보, 회화(繪畵) No.1, 1957,
캔버스에 유채, 95x82cm, 개인 소장

07
여인좌상(女人座像), 1955,
캔버스에 유채, 121x88cm

올 가을, 떠나야 할 이유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 & 프랑스 파리 피악(FIAC)



01

클래식 애호가들의 워너비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

유럽에서 가장 다양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호수를 꼽는다면 주저 없이 스위스의 루체른 호수(피어발트슈테터 호수)가 떠오른다. 리기산과 필라투스산에 둘러싸여 그림과도 같은 풍경을 뽐내는 루체른의 호숫가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루체른 문화컨벤션 센터(Kultur und Kongresszentrum Luzern, 이하 KKL)이 그 위용을 자랑한다. 유럽 최고의 음향으로 손꼽히는 이 공연장에서는 매년 여름과 가을 클래식 음악계의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02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LFO)는 베를린필, 뮌헨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빈필 등 손꼽히는 유럽 최고의 오케스트라 수석들과 스타급 솔리스트들이 모인 오케스트라의 어벤저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1월 타계한 명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2013년 여름까지 지휘봉을 들고 위암 수술로 쇠약해진 몸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선보였던 말러 교향곡 사이클은 여전히 클래식 팬들에게 회자될 만큼 빼어난 명연이다. 1938년 당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던 지휘자 에른스트 앙세르메의 주도로 이뤄진 페스티벌의 첫 시작은 겨우 10여 개의 공연에 불과했으나 80년을 지나며 음악계 최정상 스타들의 집합으로 도약했다. 내로라하는 오케스트라, 전설적인 지휘자와 솔리스트들을 한꺼번에 루체른에서 만날 수 있다. 매년 테마에 따라 모차르트부터 볼레즈, 베리오 등 현대음악까지 세기를 가로지르는 프로그램으로 알찬 구성을 자랑한다.

01

지난 8월 16일~9월 25일까지 펼쳐진
루체른 여름 페스티벌 공연 무대
©LUCERNE FESTIVAL

02

공연장 KKL에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 리카르도 샤이
©LUCERNE FESTIVAL

루체른 페스티벌

- 일시 2019.10.6~19
2019.11.16~24
- 장소 루체른 콘서트홀 KKL
- 홈페이지 www.lucernefestival.ch

올 10월에는 아바도의 후계자로 LFO를 이끄는 지휘자 리카르도 샤이와 함께 오케스트라는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유라시아 대륙의 건너편에서도 슈퍼 스타급 오케스트라로서 그들의 기량을 맘껏 뽐낼 그들의 공연이 벌써 기다려진다. 11월에 펼쳐지는 루체른 페스티벌은 피아노를 주제로 삼아 이어진다. 보통 음반으로만 접할 수 있었고 평상시 공연에서는 매진 행렬이 이어져 표를 구하기 힘들던 거장 피아니스트들은 물론 반짝이는 재능을 가진 신인들까지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 낮에는 필라투스과 리기 등 주변의 산에 올라 압도적인 스위스의 산세를 즐기고 저녁에는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KKL에서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만날 수 있으니 이 어찌 꿈같은 순간이 아닐까. 음표 하나하나를 어루만질 수 있을 것만 같은 생생한 음향은 KKL에서만 가능한 경이로운 청각적 경험이다. 잔잔한 호숫가의 풍경을 바라보며 바그너가 작곡에 매진한 그의 별장이 시내에서 20분 거리인 만큼 작곡가의 흔적을 느낄 겸, 잠시 다녀오는 것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

명실상부 세계 No1. 아트페어

프랑스 파리 피악(FIAC)

피악(FIAC)

· 일시	2019.10.17~20
· 장소	파리 그랑 팔레(Grand Palais)
· 홈페이지	www.fiac.com

01



01
아트페어 기간 동안 콩코르드
광장에 설치된 대형 조형물


02
지난해 아트페어에 참가한 뉴욕
갤러리 '폴 카스민(paul kasmin)'
출품작

03
스위스 취리히의 아트 갤러리
'그무르징스카(gmurzynska)' 출품
공간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10월에 열리는 현대미술 아트페어 FIAC은 1974년 시작되어 매년 현대 미술의 진보와 발전을 기치로 삼아 스위스의 바젤 아트 페어, 북미의 시카고 아트페어와 함께 세계 3대 아트페어로 꼽힌다.

2019년 올해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그랑 팔레, 뷔띠 팔레, 튀틀리 정원, 콩코르드 광장, 방돔 광장, 외젠 들라크루아 뮤지엄 등의 장소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하루에도 수십만의 유동인구와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병뚝 광장, 콩코드 광장 등의 공간에 설치된 유명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은 전 세계 언론의 커다란 주목은 물론 속속들이 올라오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SNS를 주도하는 메인뉴스로 거듭난다. 파리가 자랑하는 병뚝 광장의 고색창연한 풍경과 큰 대조를 이루는 현대미술 설치작품들은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는 파리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선명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일례로 2015, 폴 매카시의 작품은 다소 외설적인 그 기묘한 형태로 여러 논란 속에 큰 화제가 되었으며, <피가로>와 <르몽드>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과연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지면을 할애해 진지한 칼럼과 담론을 선보였다. 오스카 투아존 쿠사마 야요이 등 유명 작가가 선보이는 거대한 규모의 작품이 본래 파리의 풍경처럼 대중들과 만난다. 전 세계 25개 국에서 쟁쟁한 작가들이 참여하는 피악의 진가는 주요 갤러리들이 선보이는 굵직한 이름의 작가들부터 젊고 감각적인 큐레이팅과 밀레니얼 세대의 감수성으로 무장한 신생 갤러리들과 큐레이터들의 안목으로 소개되는 신진 작가들까지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랑 팔레의 메인 홀에서 윈스턴 처칠 가를 지나 건너편 프티 팔레까지 가득 채워진 보행자 전용 도로 위의 작품들은 20세기 초 파리를 전 세계 문화예술의 수도로 거듭나게 한 만국박람회를 떠올리게 한다.

당장 구매자가 되지 않더라도 괜찮으니 무엇보다 편안한 신발을 준비하고, 가볍게 걷다가 마주하게 되는 작품들, 시선을 사로잡는 신선하고 감각적인 새로움과 마주할 준비를 하자. 복잡하고 어려운 현대 예술이 아닌, 눈과 심장을 사로잡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02



03



1 방방곡곡 음악 선물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The Gift'

The Gift

who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
레이블소셜 퓨전국악밴드
AUX

what

문화예술 단체의 지속적인
성장 위한 예술 활동 지원 및
티켓나눔



01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오케스트라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의 공연 현장



02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창작공연을 펼치는 퓨전국악밴드 AUX의 무대



03 문화소외계층과 메트라이프코리아 직원들이 함께 관람한 뮤지컬 <영웅> 현장

"함께해주신 여러분이 바로 'The Gift'입니다"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문화예술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9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전체를 대관하여 문화소외계층과 함께 뮤지컬 <영웅> 티켓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김서훈(지체장애 2급/가명) 참가자는 평소 문화생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한 뮤지컬 관람이 보호자에게도 지친 일상에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고 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뮤지컬 관람을 통해 얻은 에너지로 귀하고 의미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소감을 남겼다.

한국메세나협회와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지난 5월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예술 사회공헌 'The Gift'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역량 있는 문화예술 단체를 발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2019년 시작된 'The Gift'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오케스트라 사회적 협동조합인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와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국악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레이블소셜 월드뮤직밴드 AUX'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나눔 행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뮤지컬 <영웅> 관람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행사였다.

지난 6월 19일에는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진행된 AUX의 <춘향난봉가> 공연을 통해 The Gift의 시작을 알렸다. 문화소외계층과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이 3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해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메트라이프생명 부산 3사업단 강수정 지점장은 "국악이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뜻밖에 너무 흥겹고 즐거워서 마치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라며 공연 소감을 남겼다.

또한, 8월 24일 오전11시에 플랫폼엘 공연장에서 브런치 콘서트로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공연을 진행했는데, 20명의 연주단원 중에서 장애 연주 단원 9명이 함께하여 친근한 영화음악 OST로 관객들과 호흡했다. 메트라이프생명 남부1 문범찬 사업단장은 "오늘 공연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행복한 동행을 함께 이뤄나갔으면 좋겠다"며 공연 소감을 전달했다.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감동을 나누며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



01



02



03

“수업 방식의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한국메세나협회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2019년 8월 5일부터 4박 5일간 ‘온드림 창의예술교육 교사 연수(이하 창의예술교육 연수)’를 진행했다. 양평 현대 블루비스타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는 80명의 초·중등교사가 참여해 교과서에 없는 창의적인 교육안을 교육자 스스로 개발하도록 도왔다.

올해에도 2017년부터 함께해 온 영국 예술교육 전문가 그룹 아티즈(Artis)가 연수를 진행했다. 예술 도구를 활용한 신개념 교과목 교육법을 전수하고 있는 아티즈는 2004년 설립된 예술교육 전문 비영리 재단이다. 아티즈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런던, 버밍엄, 맨체스터, 요크셔 등지에서 약 5만 명의 어린이에게 교육되고 있다.

아티즈의 수업 방식은 음악과 움직임, 드라마 등 일상 속 예술을 통해 교사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나아가 교사의 창의성을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함께 공유하고 계획해나간다. 현장에서 바로 기획된 수업은 학교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연수에 참여한 김미정 교사(의정부 장암초등학교)는 “예술적인 방법으로 일반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처음에는 와 닿지 않았는데, 연수를 통해 방법과 효과에 대해 알게 되니 수업에 열려 활용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수업에 참여한 배가영 교사(군포 흥진초등학교) 또한 “이 연수는 교과 지도에 대한 틀을 깨뜨릴 수 있어 좋았다”며 “지식 주입보다 학생들의 생각을 음악이나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시도하려 한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양미현 교사(고양 서정초등학교)는 “이 연수를 통해 좋은 수업은 아이들을 즐겁게 만들고 그를 통해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가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뀐다”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가치와 철학을 함께 공유했다.

연수 종료 후, 예술을 통한 교육 사례는 책자로 제작돼 한국 교육 현장 곳곳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신선하고 창의적인 교육수단이 널리 배포돼 우리 교육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 ▼▼

01~03

음악과 움직임, 드라마 등 일상 속 예술로 수업방식의 틀을 깬 참가 교사들

예술로 배우는 국어? 움직임으로 배우는 수학!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창의예술교육 교사 연수'

2

온드림 창의예술교육 교사 연수

who

전국 초·중등교사 대상

what

영국 예술교육 전문가 그룹 아티즈(Artis)와 함께 예술을 통한 창의성 수업방식 기획

3 사회적경제 성공 모델로 비상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 정몽구 재단
'2019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시상식'

“미래 견인하는 착한 아이디어로 승부해요”

한국메세나협회는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지난 7월 23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2019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실장 등 사회적경제 관계자와 H-온드림 8기 선정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이끌어 온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창업 초기 사회적 기업에게 팀당 최대 1억 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경영전략 진단부터 전문 컨설팅 및 교육, 파트너십 기반의 판로 개척 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별 창업팀뿐 아니라 프로젝트 그룹 결성을 통해 사회적 미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팀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소셜 임팩트 컨소시엄'이라고 불리는 이 신규 트랙은 5개 이상의 창업팀 간 협력하는 프로젝트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중요한 아젠다를 해결하는 협업 과정에 대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의 모집·심사를 거쳐 선발된 H-온드림 펠로 8기의 개별 창업팀 19팀과 소셜 임팩트 컨소시엄팀 3개의 시상식과 사업소개 발표회가 진행됐다. 펠로 8기로 선정된 모든 개별 팀들과 컨소시엄 팀들은 각각의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시상식에 앞서 지난 6월 26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개최된 '유엔 사회연대경제 컨퍼런스(UN SSE)'에서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이 관련 분야의 성공적인 모델로 발표된 바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2021년까지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을 통해 150개 사회적 기업 창업을 지원해 1,25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who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창업 초기 사회적 기업

what

최대 1억 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경영전략 진단부터 전문 컨설팅 및 교육, 파트너십 기반의 판로 개척 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01



02



03

01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시상식을 빛낸 참가자들

02 결혼이주여성과 고령자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 '상상'의 발표 현장

03 보호종결 아동들의 정서적 지원 지원과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친환경 인테리어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힌 '브라더스키피'

“얼굴에 과자를 붙여서 콜라주 작품을 만들어요”

한국메세나협회와 크라운-해태제과는 8월 12일 경기도 양주 크라운해태 연수원에서 어린이 여름방학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크라운해태 국악캠프’를 진행했다. 2014년 시작한 ‘크라운해태 국악캠프(이하 국악캠프)’는 문화 소외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대전, 구리, 파주, 인천 등 4개 지역 7개 지역아동 센터에서 136명의 어린이를 초청해 진행했다.

첫 프로그램은 과자로 미술 작품을 만드는 ‘과자로 만들기 놀이’ 시간이었다. 크라운-해태제과가 운영하는 키즈 뮤지엄의 주요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과자로 만들기 놀이’는 피카소로 대표되는 큐비즘의 기본 원리를 과자를 통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웨하스 도화지 위에 초콜릿 크림으로 그린 그림을 접한 어린이들은 상상력을 동원해 창의적인 콜라주 작품을 만들어갔다. 과자 그림 그리기를 완성한 어린이들은 뒤이어 본격적인 국악 체험을 시작했다. 첫 번째 국악 체험은 크라운-해태제과의 지원을 받는 동락연희단과 함께하는 ‘즐거운 연희 교실’이었다. 어린이들은 민요, 사물놀이 장단을 함께 배우고 남사당놀이의 하나인 ‘버나 돌리기’를 체험했다.

그 다음 진행된 ‘즐거운 국악 교실’은 전통문화에 친숙해진 어린이들이 본격적으로 국악기를 배워보는 시간이었다. 락음국악단 단원들이 직접 해금, 가야금, 아쟁, 거문고 등의 국악기를 가르쳤고, 어린이들은 이 수업을 통해 우리 소리의 묘미를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들이 학교 수업을 통해 악기를 접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연주해보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고 말문을 연 예인지역아동센터의 김정원 교사는 “전문가 선생님이 옆에서 한 명 한 명 가르쳐 주니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수업 참여 소감을 남겼다.

국악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국악뮤지컬 ‘춘향난봉가’, 역사연극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전통문화에 친숙하게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다.

크라운-해태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국악을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기억에 남을만한 여름방학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며 “국악캠프를 통해 국악의 재미를 알리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

크라운해태 국악캠프

who
문화 소외지역 어린이들

what
과자 만들기 놀이, 다양한 국악 체험, 국악뮤지컬 관람 등 아이들에게 국악의 재미를 알리는 프로그램 진행

- 01 남사당놀이의 하나인 '버나 돌리기'를 체험하는 아이들
- 02 웨하스 도화지 위에 과자로 만드는 미술 작품 체험
- 03 락음국악단원과 함께 직접 국악기를 체험해보는 '즐거운 국악 교실'



국악체험과 미술체험을 동시에

크라운-해태제과 '2019 크라운해태 국악캠프'



01

촉감으로 완성하는 나만의 작품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인텐시브 아트캠프'

“장학생, 대학생 멘토, 임직원 멘토가 함께 멋진 작품을 완성해요”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드림그림 아트캠프가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곤지암 리조트에서 진행됐다. 미술영재 장학사업인 드림그림 아트캠프는 해마다 여름 방학 시즌에 맞춰 드림그림 장학생들의 미술 실력 향상을 위해 미술 작가를 초빙해 집중적인 미술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미적 감각뿐 아니라, 캠프를 통해 멘토 및 한성자동차 임직원 엠버서더와 함께 작업하며 협동심을 기를 수 있어,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기회가 되어왔다.

이번 아트캠프는 ‘Customize Your Dream’이라는 주제로, 비누와 종이, 식물과 산업재료 등 촉각적인 재료를 소재로 작품을 제작하며 학생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과 매체로 작업하는 디자이너들을 만나보고, 하나의 브랜드를 일궈나가는 의미를 몸소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식물을 매개체로 작업하는 아티스트 ‘파도 식물’, 페이퍼 아티스트 박찬비 작가를 비롯해 친환경 천연 비누 제작 브랜드 ‘한아조’의 대표 조한아 작가, 디자인 그룹 마음(MAUM)스튜디오 등이 초청되었다.

특히, 캠프 이튿날인 23일은 드림그림 장학생과 1:1로 매칭된 한성자동차 임직원으로 구성된 엠버서더가 작품 활동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조한아 작가의 지도 아래, 드림그림 장학생과 한성자동차 엠버서더 임직원은 메르세데스-벤츠 모델카가 달리는 거대한 ‘비누 땅(Land)’을 제작했다. 팔, 호박 등의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컬러로 바다와 산이 표현되었으며,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모델카와 함께 하나의 작은 미니어처 세상이 탄생되었다. 아트캠프를 통해 제작된 작품은 한성자동차 전시장에 전시된 후, 어린이 병원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번 아트캠프에 참여한 박주희 학생은(부산 예술고 2학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았던 사소한 것들이 우리 손을 거쳐 멋진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한성자동차 울프 아우스프룽 대표는 “드림그림 여름캠프는 그동안 배운 것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쇼케이스 같은 곳”이라며 “이번 캠프를 통해 경험한 것들이 한국국제아트페어(Korea International Art Fair)와 서울문화재단의 아트 페스티벌을 통해서도 멋지게 발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01

‘비누 땅(Land)’ 작품을 함께 제작한 한성자동차 임직원과 드림그림 장학생

02

메르세데스-벤츠 모델카가 달리는 거대한 ‘비누 땅(Land)’ 작품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who

예술가의 꿈을 키우는 중·고등학생

what

디자이너, 아티스트, 학생들이 멘토와 멘티를 이뤄 협업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고 전시 및 행사에 출품



02

“음악을 정확하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을 갖는 게 더 중요해”

한국메세나협회가 한화그룹과 함께 기획한 클래식 악기 교육 프로그램 ‘2019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캠프’가 8월 7~9일 2박 3일간 일정으로 무주 태권도원에서 진행됐다. 2014년 시작해 6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는 청주와 천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전문 강사로부터 매주 2회 그룹레슨과 앙상블 교육 등 총 160시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는다. 또한 ‘함께 완성하는 연주’의 즐거움과 협동심을 배우게 된다.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여름캠프가 특별한 이유는 1년 중 두 지역의 청소년들이 모여 합주 연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관악기를 연주하는 청주지역 청소년과 현악기를 연주하는 천안지역 청소년들이 여름 캠프를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뤘다.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퀸(Queen)의 ‘보헤미안 랍소디’ 등 연말 정기 연주회에서 연주될 곡들을 함께 연습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악기별 연습을 통해 채워나갔다.

특히, 이번 캠프기간에는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선배단원으로 음악대학에 진학한 최지윤(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1기, 충남대 1학년) 씨가 전문 강사를 돕는 보조강사로 참여해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함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던 동료이자 선배로서 후배 단원들의 연주 역량이 향상될 수 있게 힘을 실었다. 최지윤 씨는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며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단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의 채은석 지휘자는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단합하고 소통하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해마다 조금씩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기특하다”며 “악기를 가까이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보람이 있다”라고 연습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들은 올 연말 천안 및 청주지역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고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펼칠 예정이다. **▶▶**



01



02



03

음악 통해 배우는 공동체 정신

한화그룹 '2019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캠프'

01 지역을 넘어 음악으로 소통하는 청소년 연주자들

02 음악으로 해마다 성장해가는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단

03 후배 단원을 위해 직접 연주 지도에 나선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출신 최지윤 씨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who
청주, 천안 지역 청소년

what
전문 강사를 통해 매주 2회 그룹레슨과 앙상블 교육 등 총 160시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음악 교육 진행

곧세어라 청춘아~ 취준생 문화예술 캠프

GS칼텍스 '취준생고동락 2기 캠프'



01

취준생고동락 캠프

who

취업 준비에 지쳐있는
취업준비생

what

와인 앤 캔버스, 나의 이력극,
합격사진관, 뮤지컬 관람,
현직자 멘토링, 자소서 특강,
인문학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01

2박 3일간 진행된 취준생고동락
2기 단체사진

02

현직자 그룹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참가자들

03

와인을 마시며 자신의 내면을
캔버스에 담은 '와인 앤 캔버스'

“사람들을 만나 즐겁고 따뜻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요즘 대학생 3학년을 일컫는 말로 '사망년'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이는 3학년 부터는 온갖 스펙을 갖추기 위해 고통 받아 사망(死亡)할 것 같다는 의미로 발음할 때 '사망년'이라고 발음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실제로 요즘 청년들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점 관리, 대외 활동, 자격증 취득, 아르바이트와 어학 연수 등 벅찬 생활패턴에 놓여 있다. 열심히 준비를 했다더라도, 취업의 문턱에서 몇 번의 고배를 마신 취업준비생들은 본인에 대한 확신과 자존감마저 떨어지기 마련이다.

지친 취준생들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갈 힘을 보태기 위해 GS칼텍스와 한국메세나협회는 GS칼텍스 취준생고동락 캠프를 기획하였다. 2018년 시작한 이 사업은 학생들의 일정에 맞춰 방학시즌에 2박 3일간의 캠프 형태로 진행되며, 2019년 한해동안 400명의 취업준비생이 함께하였다.

올해 7월 3일부터 5일까지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GS칼텍스 취준생고동락의 가장 큰 장점은 취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강연과 워크숍 등 개별 역량 제고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자기탐색과 심리치유의 경험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정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다. 와인을 마시며 솔직하게 내면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와인 앤 캔버스', 참가자들의 실제 이야기로 내용을 구성하여 무대 위에서 공연을 체험하는 '나의 이력극', 퍼스널컬러 진단을 통한 증명사진 촬영 '합격사진관', 취업준비생의 애환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창작 뮤지컬 관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습관 형성을 위한 '미라클 모닝', 현직자 그룹 멘토링과 자소서 특강, 인문학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득했다.

“문화예술로 즐겁게 취업하자!”는 대형 현수막을 보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입소했던 참가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힘들었던 제 마음도 위로를 받았고, 앞으로 힘을 내어 더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고,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을 멘토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상담하면서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참가자도 만날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GS칼텍스는 앞으로도 더 많은 취준생들이 본 캠프에 함께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MM**



02



03

상상을 깨우는
연금술사의
숨은 보물찾기!

〈하이메 아온, 숨겨진 일곱 가지 사연〉展

- 일시 2019.4.27~11.17
- 장소 대림미술관
- 관람료 1만 원(성인)



01



02



03

01
작가의 대표 작품
〈Green Chicken〉 ©대림미술관

02
트라팔가르 해전을 주제로 한 대형 체스판
〈The Tournament〉 ©대림미술관

03
BD 바로셀로나 디자인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Happy Susto〉 ©대림미술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 반열에 오르며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디자이너 하이메 아온(Jaime Hayon)의 전시가 11월 17일까지 대림미술관에서 펼쳐진다.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하이메 아온, 숨겨진 일곱 가지 사연〉展은 디자인, 가구, 회화, 조각, 스케치부터 특별 제작된 대형 설치 작업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과 그 안에 숨겨진 작품의 스토리를 통해 세상을 보다 흥미롭고 재미있게 바라보는 작가 특유의 시선을 보여준다.

하이메 아온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스타 디자이너이자 '타임(Time Magazine)', '월페이퍼(Wallpaper)', '엘르 데코(Elle Deco)' 등 세계 유수의 매체가 선정한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다. 그의 마치 오브제의 연금술사처럼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뛰어넘어 사물 자체에 생명력을 불어 넣고, 사람들의 감정과 상상을 자극하며 일상에 뜻밖의 재미를 선사한다.

이번 전시는 '크리스탈 패션', '아프리카노 가족의 사연', '트라팔가르의 체스 경기',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꿈', '수상한 캐비닛', '가구가 반짝이는 푸른 밤', '아온의 그림자 극장' 등 평범한 사물들에 숨어있는 판타지를 발견하고, 오브제들이 주인공이 되어 저마다의 사연을 들려주는 7가지 공간으로 구성된다. 하이메 아온의 이채로운 판타지 속 오브제들은 그들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건넨다.

어쩌면 잊고 있던 유년 시절 상상 속 친구들을 다시 만나 이상한 나라의 설레는 여행을 떠나게 될 지로 모를 일이다.

3년 지원의 결과물 한자리에


종근당홀딩스 <제6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 개최

종근당홀딩스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1층 미술관에서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제6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을 개최한다.

2012년부터 진행한 '종근당 예술지상'은 한국 현대미술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이장한 회장의 뜻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종근당홀딩스는 한국메세나협회, 아트스페이스휴와 협력해 매년 3명의 신진 미술작가를 선발해 현재까지 총 24명의 미술작가를 지원해왔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1인당 연간 1천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기획전은 '종근당 예술지상 2017 선정 작가인 유창창, 전현선, 최선 3명의 작가들이 3년간의 창작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로 총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3명의 작가는 종근당 예술지상 작가에 선정된 후 종근당의 창작지원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유창창 작가는 명랑 만화와 회화의 영역을 넘나들며 개인의 불안과 공포, 억압적 제도와 현실을 초현실적이며 표현적인 이미지로 제시한다. 개인과 사회의 비극과 희극이 기묘하게 결합된 현상에 대한 감정을 드로잉으로 재현한다. 전현선 작가는 전형적인 회화 형식을 통해 역설적으로 더 이상 회화로 담아낼 수 없게 된 시대의 부조리함을 다양한 기하학적 도상과 일상의 사물을 병치하는 작품을 보여준다. 또한 전 작가는 문학적이며 신화적인 메타포를 폭넓게 작업에 적용한다. 최선 작가는 회화의 형식과 표현기법을 예술과 사회의 관계, 예술과 정치, 도덕의 관계로 은유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 사적 세계에 함몰하는 예술을 비판적으로 보며, 회화 이미지를 사회 조사 연구의 한 형식으로 해석하는 프로젝트 방식의 작업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의 기획자인 아트스페이스 휴 김도암 대표는 "이번 전시는 오늘날 회화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며 "작가들은 개인이 가능한 가장 역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회화의 영역을 더 깊고 넓게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6회 종근당 예술지상 포스터



종근당 예술지상 2017 선정 작가 유창창·전현선·최선




<2019 히엣농크> 공연 장면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 클라라 주미 강과 세종솔로이스츠의 협연 무대

지난 7월 11일, 인천대학교 대강당에서 <2019 히엣농크>가 막을 내렸다. '히엣농크'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세계 음악제의 흐름을 국내 관객과 함께 나누고자 세종솔로이스츠가 2017년부터 인천을 기반으로 시작한 음악제다.

이번 음악제에는 러시아의 최고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과 세계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클라라 주미 강이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 했다. 이들의 인연은 지난해 3월 러시아의 '2018 트랜스 시베리아 아트 페스티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본 페스티벌에서 세종솔로이스츠와 두 연주자는 모스크바, 크라스노야르스크, 노보시비르스크에서의 3회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며 한국의 단독 파트너로 선정됐다. 올해 히엣농크 공연은 클라라 주미 강이 연주하는 부드러운 음색의 마스네 '타이스의 명상곡'으로 시작해 바딤 레핀의 차이콥스키 '렌스

키의 아리아', 라벨 '치간느' 연주에 이어졌다. 이구데스만의 '코베리아 판타지(Koberia Fantasy)' 연주에 이르러 절정에 이른 공연은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트랜스 시베리아 아트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이자 세계 3대 바이올리니스트인 바딤 레핀은 "오랜 파트너인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 코베리아 판타지를 한국에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공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1994년 미국 줄리아드 음대의 강호 교수가 한국을 주축으로 8개국 출신의 젊은 연주자와 함께 시작된 현악 오케스트라 세종솔로이스츠는 지금까지 전 세계 120개 이상의 도시에서 500여 회의 공연을 펼쳤다. 종합 전력 IT 전문 기업 벽산파워는 2010년부터 예술지원 매칭 펀드 사업을 통해 세종솔로이스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온 특별한 손님 무대에서 만나요 <2019 히엣농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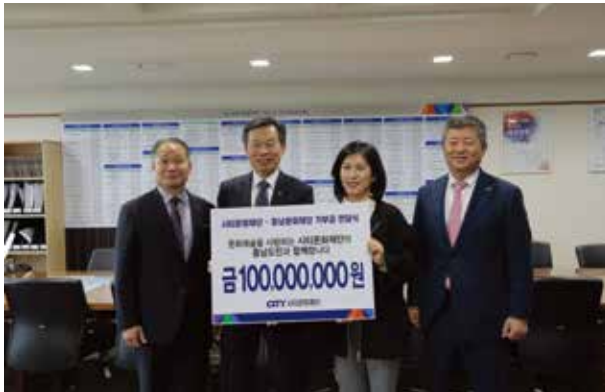
벽산파워 & 세종솔로이스츠



<2019 히엣농크>
포스터

문화예술 가득한 학교 밖 세상

충남문화재단 & 시티문화재단



충남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한 충남문화재단과 시티문화재단

지난 7월 11일 서산 팔봉초등학교와 서천 한산초등학교 학생들 100여 명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위해 1박 2일 여정으로 서울을 찾았다.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와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견문을 확장하고 문화예술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충남문화재단과 시티문화재단이 손을 잡았다.

시티건설이 출연해 지난해 신설된 시티문화재단은 충남문화재단과 2018년 충남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고 1억 원을 기부한 데 이어, 2019년 1억 원의 기부금을 추가로 전달했다. 이 기부금으로 진행된 '문화소외지역 학생 문화예술탐방'은 시티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추진된 첫 번째 사업으로, 충남지역을 벗어나 수원, 서울 등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탐방 첫째 날, 수원의 대표 문화재인 화성행궁을 시작으로 조선시대 무과시험 과목으로 활용된 무예24기의 역동적이고 경쾌한 무예를 관람했다. 이어 방문한 곳은 예술 작품에 첨단 IT기술을 더해 이색적인 공간으로 설계된 체험형 테마파크 '라플리에'다. 이곳은 충남 대표 기업 맥시스컴퍼니가 기획·운영하는 곳으로, 학생들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빈센트 반 고흐, 클로드 모네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에 즐거워하며 예술과 교감하는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이후 명보아트홀에서 뮤지컬 <점프> 공연을 감상한 뒤 배우들과의 깜짝

만남도 가졌다. 둘째 날,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창덕궁과 창경궁의 역사를 배운 학생들은 국내 대표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관람과 교육 프로그램 체험을 진행했다.

서천 한산초등학교 이동규 교장은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자라고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시티문화재단 윤지연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민에게 문화로 즐거움을 선사할 기회가 주어져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티 건설이 지향하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20만 충남도민들과 문화적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속적인 지원의 의지를 전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통해 새로운 관심과 흥미가 생긴 학생들이 더욱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충남문화재단과 시티문화재단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견문을 확장하는 학생들



한빛예술단 앙상블 연주



한빛오케스트라의 대구오페라하우스 공연 무대

2003년 브라스앙상블로 시작한 한빛예술단은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구성된 전문 연주단체로 급어가 지급되는 정단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설립 초기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직업 모델을 제시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지금의 한빛예술단은 한 발 더 나아가 장애인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배려,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민간 연주단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안정적인 단체 운영 뒤에는 신세계백화점의 후원이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한빛예술단은 2012년 3월부터 1사 1사회적기업 후원 협약을 맺고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의 결연 커플로 참여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의 연주력을 향상을 위해 공간과 강의 지원뿐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대구 오페라하우스, 연세대학교 백양홀 등의 다양한 무대에서 기획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의 문화홀 순회공연 지원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진행한 한빛예술단의 공연 중 대표적인 타이틀

은 <Music in the Dark>, <명작영화 OST 콘서트> 그리고 <생명사랑 음악회>가 있다. <Music in the Dark>는 악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적의 연주라는 평가를 받으며 대중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했다. <명작영화 OST 콘서트>는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음악들을 영상과 함께 감상하며 음악을 친근하게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음악회다. <생명사랑 음악회>는 자살 유가족을 위한 치유음악회로 진행되기도 했다.

여러 활동들을 통해 한빛예술단은 지난해 서울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됐으며, 한국문화회관연합회 민간예술부문 우수작품으로 선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여받았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치유의 힘을 보여주는 신세계백화점과 한빛예술단의 지속적인 활동이 지속되길 바라며, 음악이 주는 자유와 희망을 노래하기를 응원한다. 🎵

빛 · 희망 · 4 위로의 음악 <Music in the Dark>

신세계백화점 & 한빛예술단

한빛예술단 대표 공연
<Music in the Dark> 무대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무대 〈올림#콘서트〉

5

올림푸스한국 & 세종문화회관

2018년 첫 선을 보인 올림푸스한국의 <올림#콘서트>가 2019년 7월 부터 세종문화회관과 손을 맞잡고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에 참여 했다.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천원의 행복 ‘온심 표’가 글로벌 광학의료기업 올림푸스한국과 함께 선보이는 무대로 기획된 것이다.

<올림#콘서트>는 음악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가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문화적 즐거움을 누리기 어려운 암 경험자와 그 가족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클래식 음악회다. ‘클래식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로 꾸며진다. 특히 음악회의 주 초청 대상인 암 경험자 그리고 그들 가까이에 있는 의료진이 관객이 아닌 출연자로도 무대에 오를 수 있다. 막이 오르고 연주가 시작되면 어느새 환자와 의사, 연주자와 관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펼쳐진다. 지난 3월 <올림#콘서트>에 이어 김민석 박사(동남권원자력 의학원 연구센터장)가 이번에도 해설 자로 무대에 올랐다.



기타리스트 배장흠과 배우 이혜영의 기타 합주 장면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 배장흠을 중심으로 한 앙상블이었다. 계절과 어울리는 친숙하고 대중적인 레퍼토리에 기타리스트 배장흠의 재치 있는 입담이 곁들여져 관객의 즐거움을 더했다. 특히 세계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최정원, 플라멩코 무용가 마르티나도 참여해 볼거리 가득한 공연을 선사했다. 암 경험 연주자 신민철의 무대도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했다. 현재 회복 중인 그는 녹슬지 않은 기타 실력으로 대표 연주곡 ‘황혼(Twilight)’과 ‘첫 발자욱(Le Premier Pas)’을 연주했다. “다른 환우들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됐다”며 “오늘 공연이 다른 암 경험자 분들에게 작은 기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공연 소감을 전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으로 유명한 배우 이혜영은 수준급 기타 실력으로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OST 중 한 곡을 연주했다.

공연이 예정 시간을 훌쩍 넘어 끝났음에도 관객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연신 ‘앵콜’을 외쳤다. 소프라노 최정원과 관객들은 ‘걱정말아요 그대’를 함께 부르며 아쉬운 인사를 나눴다. 올림푸스한국과 세종문화회관이 협력해 기획한 무대 <올림#콘서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해 본다. ▶▶



관객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한 소프라노 최정원과 암 투병 후 회복 중인 기타리스트 신민철

런던 웨스트엔드를 강타한 연극 <머더 미스터리>가 6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두 달 동안 대학로 서경대 공연예술센터에서 한국 관객들을 만났다. <머더 미스터리>는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2013년 초연된 이후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런던 웨스트엔드에 안착한 스테디셀러다.

192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탐정을 포함한 7명의 등장인물이 무대에 오른다. 즉흥극인 이 공연은 무대 위의 배우 외에 관객 또한 중요한 등장인물이 된다. 극 초반 탐정이 객석으로 모자를 던져 관객 중에서 조수 저킨스를 즉흥적으로 선정한다. 저킨스 역을 맡은 관객은 다른 관객들이 제시한 사건의 장소와 증거 중에서 극의 배경이 될 요소를 하나씩 결정한다. 무대의 배경은 관객의 아이디어와 저킨스의 선택에 따라 우주선 발사 현장이 되기도 하고 누드 비치가 될 수 있어 흥미진진하다.

첫 공연은 패션쇼장과 보라색 구두가 배경과 증거로 선택되어 '패션쇼장에서 일어난 보라색 구두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펼쳐졌다. 배우들은 각자의 관계성과 직업을 설정하며 극을 이끌어갔고 20년 경력의 모델 엄마와 능력 없는 디자이너 아들 등 전 배우가 즉석에서 인물을 만들어 극을 완성했다. 즉흥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도 재치 있게 바로잡거나, 또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돼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영국의 원작 연출가인 리지 스키키역과 조연출이자 액팅 코치인 케이틀린 캠벨은 이번 한국 초연을 위해 연습과정을 직접 진두지휘했다. 스키키역 연출은 "배우들의 습득력이 매우 빠르고 팀워크가 좋아 훌륭하게 연기해주고 있다"며 캐스팅 된 배우들에게 극찬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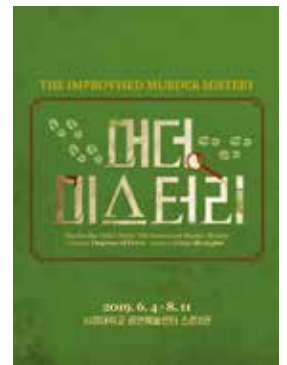
이번 공연을 지원한 티제이티솔루션은 2018년부터 극공작소 마방진과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을 통해 결연을 맺고 있다. 지속적인 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임직원 문화복지 및 고객관리에 좋은 시너지를 얻으며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



배우와 관객이 만들어가는 즉흥 무대 장면 ©(주)아이엠컬처, 극공작소 마방진

반전의 반전 즉흥 연극 <머더 미스터리>

티제이티솔루션 & 극공작소 마방진



<머더 미스터리>
공연 포스터

문화 매개로 비즈니스 시너지 up!

문화예술로 인사하는 기업 눈길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집대 현장 ©로알&컴퍼니

문화·예술로 협력사와 소통하는 로알앤컴퍼니·한화

욕실 리빙 제품과 미술 작품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첼로와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눈빛은 초롱초롱하게 빛난다. 욕실 전문 기업 로알앤컴퍼니는 '삶이 곧 예술'이라는 모토로 운영하는 복합 문화공간 '로알라운지'를 통해 200여 개의 협력 업체와 고객들을 만나고 있었다. 문화와 예술, 인문학, 리빙에 대한 아카데미는 물론 공연과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와인과 함께 그날의 강연과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3만 평 규모의 경기도 화성 사옥에서도 갤러

리, 공연장을 마련해 고객, 협력사,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무대를 선보이고 입주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까지 운영, 기업과 예술과 삶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인문학 강의에 참석했던 협력사 관계자는 “공연이나 강좌가 있을 때마다 초청장을 받는데,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한다. 매번 주제도 다양하고, 특히 로알라운지에서 열린 인테리어 강의는 시장 트렌드를 읽는 데 도움이 된다”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두 회사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진 것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예술의 전당 '교향악축제'를 단독으로 후원할 정도로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는 김승연 회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과 협력사, 지역사회를 상생 파트너로 인식하며 동반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임직원과 협력사가 함께 한화이글스 경기를 함께 응원하기도 하고, 예술의 전당 '교향악축제'와 한강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에도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초청하며 스킨십을 강화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화 팝&클래식 여행'은 관객의 70~80%가 고객사, 협력사로 채워진다. 한화그룹의 각 계열사는 협력사의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초청하기도 하고 VIP 고객, 잠재 고객까지 범위를 넓혀 문화접대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회사 규모나 연봉보다는 근로시간, 조직문화 등을 더 중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금보다 워라밸을 추구하는 경향은 재직자 집단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기 위한 방법을 나누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접대 문화 개선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주52시간 근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잇따라 도입되면서 유휴 및 향응 접대가 확연히 줄고, 공연 및 전시 등을 통한 품격 있는 접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 접대비 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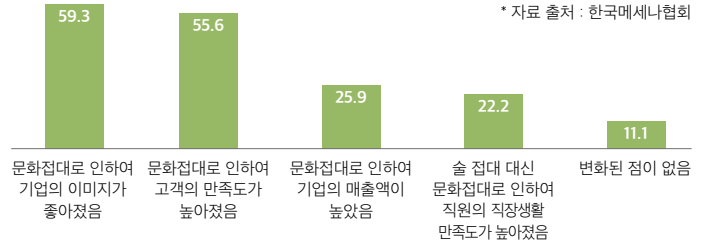
흔히 '접대'라고 하면, 대부분 뉴스나 영화에서 봤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 접대는 接(이을 접) 待(기다릴 대), '잇고 기다리고 대접한다'는 중립적 의미로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접대비가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문화예술을 통한 건전한 접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문화접대비 제도'다.

2007년에 도입된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 접대비 한도가 초과할 때 손금산입(비용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문화접대비에 한해 20%까지 늘려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 세법에서는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를 억제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일반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문화접대비는 거래처에 좋은 인상을 주면서 법인세 절감효과까지 있다.

문화 접대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

한국메세나협회가 진행한 '2017년 기준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문화접대 활용을 통해 변화된 점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졌다'와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59.3%,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5.9%가 기업의 매출까지 늘었다고 하니 문화접대를 진행한 기업들의 만족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화접대비 제도'는 여전히 활용이 미진하다. 매년 전체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의 비율은 여전히 0.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협회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문화접대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문화접대를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8.8%로 가장 높아 기업의 인식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문화접대 지원

이에 한국메세나협회는 지난해부터 '이제는,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하는 문화접대 활성화 캠페인으로, 문화접대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계도 상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올해 더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 중이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소기업이 문화접대를 활용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3일 세종문화회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회 및 공연 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문화 개선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지도와 이해도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문화로 선물하기 어렵지 않아요

거래처의 필요와 관심 분야를 파악한다면 문화 선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거래처의 니즈에 적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공연·전시·스포츠 경기 티켓 등을 구입하여 선물하거나 공연 혹은 문화강연을 기획, 초청하는 등 품격 있는 접대의 방법은 다양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고객이나 협력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소비를 통해 기업 사회공헌 영역의 예술 후원(메세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효과까지 있다. 더 많은 기업이 문화를 통해 인사를 나누기를 희망한다. 



한화 협력사와 고객사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한화그룹의 '한화 팝&클래식 여행' ©한화

*본 칼럼은 세종문화회회관 웹진 <문화공간 175>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거장 마에스트로와 새 출발
서울시립교향악단 신임 음악감독 '오스모 벤스케' 선임**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재단법인 출범 후 제2대 음악감독으로 핀란드 출신 지휘자 오스모 벤스케를 선정했다. 2020년 1월부터 3년간 서울시향의 음악감독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벤스케 음악감독은 6월 24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신임 음악감독으로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시벨리우스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는 벤스케는 시벨리우스는 물론 베토벤, 브루크너, 말러 등 폭넓은 스펙트럼의 레퍼토리에 정평이 난 지휘자다. 그는 향후 서울시향과 함께 탄탄한 기초 속에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지속할 계획이며, 지휘 활동과 함께 교향악단 운영 전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오스모 벤스케 음악감독의 취임 연주는 2020년 2월에 진행된다.

**'베를린 필하모닉 이견 앙상블' 초청
이건산업 제30회 이견음악회 개최**



이건산업은 '베를린 필하모닉 이견앙상블'을 초청, <제30회 이견음악회>를 개최했다. 7월 5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이번 공연에 초청된 '베를린 필하모닉 이견앙상블(이하 이견앙상블)'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 이견음악회의 진정성 있는 나눔의 취지에 공감해 특별히 결성한 12인조의 실내악 연주그룹이다. 이번 음악회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단원인 로마노 토마시니, 울프강 탈리츠, 야누스 위드지크를 주축으로 베를린 필하모닉 내 현악 실내악단인 카메라타 단원들과 첼발로 솔리스트인 크리스천 리거의 조합으로 구성돼 화제를 모았다. 이견음악회는 지역 사회에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건축자재기업 이견(EAGON)이 주최하는 무료 클래식 콘서트로, 세계적 음악가를 발굴·초청해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왔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무료 클래식콘서트 중 30년 동안 한 회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은 이견음악회가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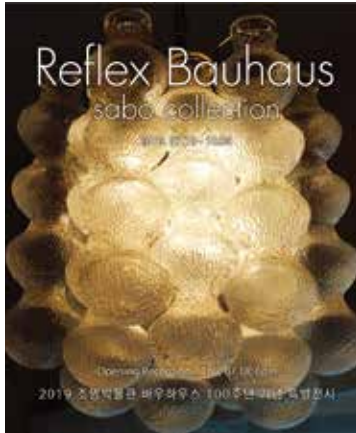
**아시아의 희망 하모니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한·중수교 27주년 기념 음악회>**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한중우호협회가 8월 22일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한·중수교 27주년 기념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두 기관은 1998년부터 해마다 한·중 양국의 신진 연주자들을 소개하는 <한·중수교 기념 음악회>를 통해 민간차원의 문화 교류에 앞장서 오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음악으로 화합하는 무대를 선보인 이번 공연은 한국의 첼리스트 문태국과 중국의 피아니스트 뉴뉴 장성량의 연주로 꾸며져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두 음악가의 진가를 여실히 드러냈다. 음악회에는 박삼구 이사장을 비롯해 장재복 공공외교대사와 추귀홍 주한중국대사, 김동호 前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 김영호 한국메세나협회장, 윤증현 前 장관, 이만의 前 장관 등 두 나라 외교 및 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한·중 간 교류의 장을 열었다.

**조명과 가구의 찬란한 서사
필룩스 <Reflex Bauhaus> 展**

필룩스 조명박물관이 바우하우스(Bauhaus)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 <Reflex Bauhaus> 사보 콜렉션을 7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최한다. 이 전시는 1919년부터 1979년까지의 바우하우스 철학이 내재된 조명과 가구를 통해 우리 생활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바우하우스적 가치를 생각해보고자 기획된 전시다. 아티스트 사보의 콜렉션과 조명박물관 소장품들로 구성된 조명과 가구를 통해 초기 바우하우스 디자인부터 1970년대까지의 다양한 생활 디자인과 라운지 스타일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 디자이너들의 가구와 조명 작품들, 글로벌 램프 기업의 다양한 디자인 조명이 대거 선보인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바우하우스 조명과 가구가 지닌 기능주의적 미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Reflex Bauhaus> 展

- 일시 2019.7.19~10.6
- 장소 필룩스 조명박물관

**클래식 연주와 함께하는 낭만 휴가
현대차 정몽구 재단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개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하는 '제5회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마을 일대에서 열렸다. 이 축제는 일상 속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 '예술세상 마을 프로젝트' 일환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낭만적 휴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올해 축제는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의 클래식 선율과 무대를 선보이며, 가족단위 여름 휴가객들이 문화와 여행, 재미를 동시에 즐기며 힐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꾸몄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웅장한 무대와 함께 2017년 반 클라이브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빛나는 인재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협연,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김대진, 마법같은 건반을 다루는 피아니스트 지용 등 대표 남성 피아니스트 3인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



었다. 또한 12명의 '첼리스트 첼로 앙상블'과 팬텀싱어 출신 남성 성악가로 구성된 '비바 프로테로'의 로맨틱한 무대가 펼쳐졌다.

**9년 만의 내한! 매튜 본의 명품 무대
LG연암문화재단 <백조의 호수> 공연**



매튜 본의 메가 히트작 <백조의 호수>가 9년 만에 LG아트센터 무대로 돌아온다. 2019년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 공연은 고전 발레의 상징과도 같은 섬세하고 가녀린 여성 백조 대신 근육질의 남자 백조를 등장시키며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백조의 호수>는 원작의 스토리를 폐기하고 현대 영국의 왕실을 배경으로, 유약한 왕자와 강인한 힘과 아름다움, 자유를 표상하는 존재 백조 사이의 웅장한 드라마를 선보인다. 특히 백조로 분한 남성 무용수들의 관능적이고 역동적인 군무는 강한 힘과 거친 카리스마를 발산해내며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백조의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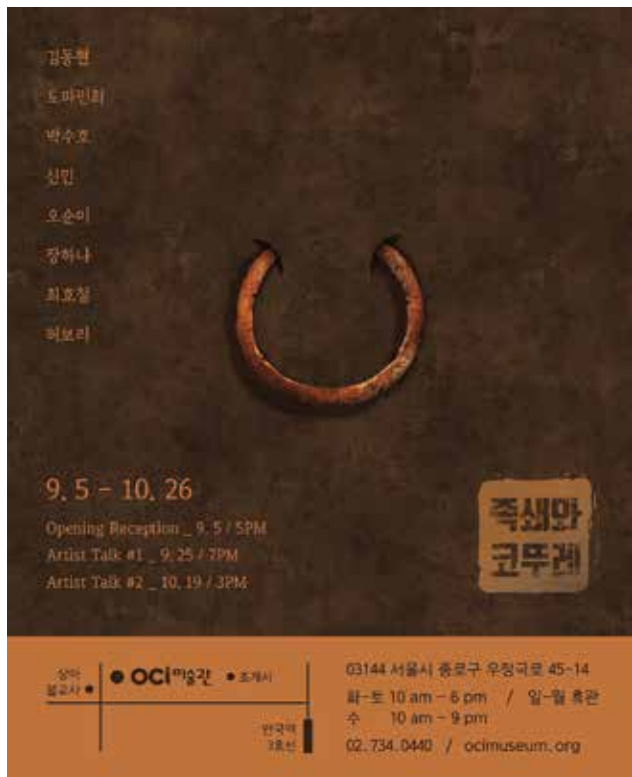
- 일시 2019.10.9~10.20
- 장소 LG아트센터

선택과 몰두의 흥미로운 딜레마
OCI미술관 <족쇄와 코뚜레> 展

OCI미술관은 9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족쇄와 코뚜레> 전시를 개최한다. 김동현, 도파민최, 박수호, 신민, 오순미, 장하나, 최호철, 허보리 등 8인 작가들이 설치와 회화 요소가 어우러진 작품들로 관객에게 이채로운 체험 요소를 제공한다. '묵묵꿇꿇', '공수겸장', '덕업일치', '퇴색금지' 등 마치 사자성어처럼 느껴지는 이 테마들은 작업과 생업 사이에서 균형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작가들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다. 먹고 사는 일과 미(美)의 추구 사이에서 지금이라도 되돌아가 족쇄 차고 고군분투 마른 풀숲을 훑어야 할지, 여물 때만 손꼽으며 이름 모를 논두렁 따라 그저 버텨야 할지 고민하는 작가의 오늘을 엿볼 수 있는 전시다.

<족쇄와 코뚜레> 展

- 일시 2019.9.5.~10.26
- 장소 OCI미술관



차별과 혐오에 대한 질문
두산연강재단 연극 <이갈리아의 딸들>



두산연강재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에서 김수정 연출의 연극 <이갈리아의 딸들>을 공연한다. 김수정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외면하고 불편해하는 이야기에 주목하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연출가다. 연극 <이갈리아의 딸들>은 1977년 출간된 게르드 브란튼베그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이갈리아'는 남성이 집안일과 육아를 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여성이 책임지는 나라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이 뒤바뀐 이갈리아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여전히 강자와 약자로 구분되고, 그 안에서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뉜다. 성별, 나이, 직업, 성적 지향 등 우리 안에 깊게 내재된 차별과 혐오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이갈리아의 딸들>

- 일시 2019.10.1~10.19
- 장소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한국메세나협회-세종문화회관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메세나협회는 지난 7월 3일 (재)세종문화회관과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기업 메세나 활성화 및 예술 기부 확대를 위해 기업 담당자 공연 및 전시 관람 행사, CEO아카데미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

한국메세나협회 김영호 회장은 "건전한 접대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예술 소비는 필수적이다"며 "이로 인해 임직원의 조직 만족도는 높아지고, 더 나아가 예술계를 간접 지원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구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세종문화회관과 한국메세나협회의 협력 범위를 한층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맨파워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시너지를 보여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메세나협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로 인사합시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하는 문화접대 활성화 캠페인으로 문화접대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계도 상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매사에게 듣는 현대미술의 트렌드 '2019 제2차 A&B포럼' 개최

2019년도 제2차 A&B포럼이 7월 4일 오전 7시 30분에 개관 30주년을 맞은 금호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강연은 케이옥션 손이천 경매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케이옥션 수석경매사이자 홍보실장인 손이천 경매사는 국내 10명뿐인 미술경매사 중 한 명이다. 낙찰 총액 3천억 원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김환기의 유화를 65억 5천만 원에 낙찰시켜 국내 경매 최고가 낙찰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최근 tvN '어쩌다 어른'에서 '예술로 시간을 읽다'를 강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외 미술시장의 구조와 트렌드를 경매에서 거래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대동여지도, 김환기 작품 등의 사례를 통해 미술품 컬렉션의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알아보고, 마지

막으로 미술품 컬렉션을 위한 팁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취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연이 끝나고 A&B포럼 참석자들은 금호미술관의 '2019 금호창작 스튜디오 14기 입주작가전'을 관람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금호미술관의 작품을 다른 관람객 없이 오롯이 포럼 참석자들만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2007년 발족한 A&B포럼은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 Business) 사업' 참여 기업과 회원사 등 기업 문화공헌사업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모임으로, 문화예술 지원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년만의 내한 전율의 늦가을 밤

2019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 일시 2019.11.1
-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9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메인 포스터

경이로운 연주로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3년만에 한국을 찾는다. 빈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1842년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악장이었던 오토 니콜라이에 의해 창설된 이래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평가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빈을 소재지로 삼고 있으며, 빈 뮤직페어라인이 상주공연장이다. 클레멘스 크라우스를 마지막으로 1954년 이후 장임지휘자 제도를 폐지해, 매 시즌마다 단원들이 선출한 객원 지휘자들이 악단을 이끌며 토스카니니·카라얀·번스타인 등 거장들이 이 악단을 객원 지휘했다. 현 시즌 지휘를 맡은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카라얀에 의해 발탁돼 데뷔했으며, 젊은 나이에 유망주로 떠오르며 세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그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를 비롯한 독일 낭만 오페라

에 강세를 보이는 그는 현재 드레스덴 국립 오페라극장의 수석 지휘자, 잘츠부르크 부활절 축제의 음악감독으로도 활약 중이다. 오는 11월 1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선보일 곡은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8번'이다. 브루크너가 완성한 최후의 교향곡이자 작곡가 스스로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여겼던 곡이다. 곡 구성이나 의미론적 관점에 있어 브루크너 음악의 모든 것을 집결시킨 교향곡으로 평해진 이 곡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의해 초연돼 더욱 의미가 깊다. 힘 있는 지휘로 청중을 사로잡는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유서 깊은 역사와 관록을 자랑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선보일 전율의 무대가 늦가을 깊은 낭만에 젖어들게 할 예정이다.



클래식계를 대표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무대 장면

Concert

Exhibition

시대 관통하는 결 다른 시선

MMCA 현대차 시리즈 2019

· 일시 2019.10.26~2020.2.23

·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MMCA 현대차 시리즈〉는 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진 작가의 개인전을 지원하는 장기 연례 프로젝트다.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작가에게 대규모 신작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업 활동에 새로운 전환과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고 한국 현대미술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기획됐다.



01 2014년에는 이불, 2015년 안규철, 2016년 김수자, 2017년 임흥순, 2018년 최정화가 선정됐으며 이불 작가는 2015년 파리 ‘팔레 드 도쿄’에 순회하는 등 국내는 물론 국제 미술현장에서도 팔목할 만한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현대차 시리즈를 꾸준히 관람한다면 각기 다른 태도와 감각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을 접하며 동시대 한국현대 미술의 현주소와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박찬경 작가가 그 주인공이다. 박찬경은 한반도 분단, 전통 민간신앙, 동아시아의 근대성을 주제로 한 영상, 사진 작업으로 국내외 미술계의 주목을 받아온 작가다. 이번 전시에서 박찬경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지리적, 문화적 상황에서 미술관과 미술사 등 관습화된 제도가 기능하는 과정과 의미를 추적하고 질문할 것이다. 그의 방식은 신화, 전통문화, 동아시아의 역사 그리고 근대성 담론과의 연계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다. 더불어 재난 이후라고 명명한 우리 사회에서 미술 언어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검토한다. **MM**



02



03

01 박찬경, 눈물도(가제), 2018-2019, 사진 설치, 가변크기, 세부. 작가 제공

02 박찬경, 파도 습작, 2018, 나무 위에 시멘트, 세부. 작가 제공

03 박찬경, 사진 Jeremy Haik,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September 09

마티아스 괴르네, 조성진 그리고 슈베르트

2019.9.18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마티아스 괴르네와 조성진이 슈베르트 가곡으로 찾아온다. 괴르네에게 슈베르트는 특별하다. 그는 1987년부터 10년에 걸쳐 슈베르트의 성악곡 전곡을 녹음한 바 있으며, 그 중 '겨울나그네'는 1997년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 음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괴르네가 고른 슈베르트

곡으로 이뤄지며, 과거 내한 공연에서 부르지 않았던 리트들을 중심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음악극 <극장 밖 독립군>

2019.9.20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대한독립군 사령관 홍범도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세종문화회관 최초로 산하 9개 예술단을 총동원해 제작했다. 극은 일본과 맞서 싸우는 홍범도의 활약상에서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50여 년의 시공간을 촘촘히 묘사한다. 특히 대중가요와 모던 록, 국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와 오케스트라와 국악 앙상블이 만들어내는 하모니가 극의 재미를 더한다.



연극 <렛 댓 잇 머니>

(Let Them Eat Money. Which Future?!)

2019.9.20~21 / LG아트센터

유럽을 대표하는 최고의 연극 제작 극장으로 손꼽히는 도이체스 테아터가 5년 만에 내한해 선보이는 실험적인 연극이다.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인들과 연구하고 토론하는 '참여형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독일 영화감독 안드레스 바이엘이 연출하고 2018년 9월 독일에서 초연했다.



벨체아 콰르텟 내한공연

2019.9.20 / 롯데콘서트홀

벨체아 콰르텟은 명실상부 베토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려내는 독보적인 현악사중주단으로 평가받는다.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이들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앞두고

조금 일찍 국내 팬들에게 최고의 베토벤 연주를 선물할 예정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테크닉과 음악성으로 완벽에 가까운 베토벤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슈퍼스타 존 버거맨展

2019.6.14~9.29 / M컨템포러리

캔버스, 페인팅, 페이퍼, 오브제, 미디어 등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예술 세계를 선보이는 아티스트 존 버거맨의 유머러스한 화풍이 돋보이는 작품 250여 점을 비롯해 독창적인 캐릭터와 그만의 스토리가 담긴 신작이 공개된다. 또한 존 버거맨의 라이브 페인팅과 작업실,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전시 관람 외에도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름다운 목요일 금호 Exclusive:

알렉세이 루비모프 피아노

2019.9.26 / 금호아트홀 연세

원전음악과 현대음악의 경계를 뛰어넘어 가장 독보적이고 경이로운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루비모프의 공연이 열린다. 페르트, 슈니트케, 구바이돌라 등의 작품을 초연한 바 있는 그는 나아가 하프시코드, 탄젠트 피아노, 포르테 피아노, 모던 피아노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건반 악기 연주로 바흐, 모차르트, 슈베르트, 쇼팽, 베토벤, 브람스 등 작품 앨범을 발매하며 '건반의 지배자'로 등극했다.



LDP 무용단 <트리플 빌>

2019.9.26~29 / LG아트센터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무용단 LDP (Laboratory Dance Project)가 2015년 <Graying>, <12MHz>에 이어 LG아트센터와 손을 잡고 신작 <트리플 빌>을 선보인다. <트리플 빌>은 정영두, 김동규, 김설진 등 탁월한 실력과 개성을 지닌 3명의 안무가가 LDP 무용단의 무용수들과 함께 만드는 3편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정명훈&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2019.9.27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가 4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이미 그와 각종 정기 연주회와 해외투어, 오페라 공연을 함께 했던 정명훈이 지휘봉을 잡는다. 2001년 인연을 맺은 정명훈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는 2006년 아시아투어 중 세종문화회관에서 브람스와 베토벤의 교향곡으로 절정의 호흡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이들의 깊은 인연과 환상적 호흡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19 서울시향 마르쿠스 슈텐츠의 베토벤 교향곡 '영웅'

2019.9.27~28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C.S. 루이스에서 테리 길리엄까지. 바그너의 <파르지팔>은 여러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다. 마르쿠스 슈텐츠가 장장 다섯 시간에 걸친 이 대작에서 발췌한 모음곡을 지휘한다. 세계적인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이 함께 한다. 이어 두 번의 강력한 화음이 울려 퍼지는데, 고전주의 음악의 영역을 확대한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이다. 전쟁과 혁명의 시대에 작곡된 이 서사적 작품은 오늘날에도 청중을 뒤흔들기에 충분하다.

국립오페라단 <1945>

2019.9.27~28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지난 2017년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국립극단의 연극 <1945>가 오페라로 재탄생했다. 해방 직후 1945년 만주에 살던 조선인들이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머물렀던 전제민 구제소를 배경으로, 그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을 통해 당시 민초의 삶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원작가 배삼식이 직접 오페라 대본으로 개작했으며, 오페라와 극음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작곡가 최우정이 작곡을 맡았다. 무대에 대한 타고난 감각으로 호평 받는 고선웅이 연출을, 섬세하면서도 선 굵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지용이 지휘봉을 잡는다.



October 10



스타즈 온 스테이지 2019

2019.10.6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한국 클래식 음악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공연으로 지난해 8월, 피아니스트 임동혁부터 노부스 콰르텟까지 대한민국 대표 연주자들이

이 총출동해 마라톤 콘서트를 펼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2019년 <스타즈 온 스테이지>의 두 번째 무대가 열린다. 한국과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많아지고, 실내악 음악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과 애정이 높아진 이때 <스타즈 온 스테이지>는 연주자와 관객들이 함께 만드는 실내악 음악의 매력을 전하며

본격적인 부흥을 꾀하고자 한다.

열혈건반

2019.10.8~12 /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 세종S씨어터

젊고 가능성 있는 음악가를 발굴



하고 젊은 음악계를 들여다보는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2019 영 아티스트 포럼 앤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행사는 '열혈건반(熱血鍵盤)'이라는 강렬한 타이틀 아래 다섯 번의 음악회와 한 번의 피치 세션, 5일간에 걸친 포럼으로 구성된다. 특히 공개 경연을 표방하는 무대 '라이브 배틀'이 주목할 만하다. 예선에서 선발된 4인의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실력을 선보이고 현장을 찾은 관객과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해 우승자가 가려진다.

유니버설발레단 <심청>

2019.10.11.~13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발레 <심청>은 우리 고전 <심청전>을 발레화한 것으로, 1986년 초연 이래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세계 40여 개 도시에서 100회 이상 공연되며 한국 발레의 자긍심을 높인 작품이다. 안무, 무대장치, 의상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시도를 통해 우리 고전의 감동을 발레에 녹여내며 동서양의 문화적 만남을 자연스럽게 이룩했다. 이번 공연은 올레그 비노그라도프 유니버설발레단 예술감독의 총지휘 아래 동서양의 공감을 모두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했다.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2019.10.13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베를린 대표 악단들 사이에서 단연 독보적인 매력과 존재감을 자랑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공연이다. 음악감독 로빈 티치아티의 치밀하고도 명쾌한 해석과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의 완벽한 케미스트리는 공연에서 선보일 말러 교향곡 1번 '거인'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협연에는 영국이 가장 사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라 베네데티가 무대에 올라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 그의 호소력 짙은 감성과 폭발적인 테크닉은 한국 관객을 단숨에 사로잡을 것이다.

아름다운 목요일 인터내셔널 마스터즈 시리즈: 틸 펠너 피아노

2019.10.17 / 금호아트홀 연세

오스트리아의 피아니스트 틸 펠너는 지난 20여 년간 세계 오케스트라와 페스티벌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가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그는 세 개 주요 유럽 톤할레, 런던 심포니 그리고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협연을 진행했다. 이어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몬트리올 심포니와 협연하고, 중국 쿠랑수 피아노 페스티벌에서 무대를 선보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카잘스 콰르텟

2019.10.22 / LG아트센터

오늘날 세계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 현악4중주단 중 하나인 스페인 카잘스 콰르텟이 처음으로 서울 무대에 선다. 1997년 창단한 카잘스 콰르텟은 카탈로니아 출신의 위대한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의 이름을 땄다. 그 이름처럼 최상의 연주력을 보여 온 이들은 뛰어난 테크닉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확실한 사운드를 구축하며 최정상급 현악4중주단 반열에 올랐다.



미사 마이스키&무직클레기움 빈터투어

2019.10.25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첼리스트 미사 마이스키가 무직클레기움 빈터투어 오케스트라와 아시아투어에 나선다. 2017년 유럽투어에서 눈부신 호흡을 자랑한 그들은 서울을 비롯해 강릉, 대구의 한국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무직클레기움 빈터투어는 1629년 창단돼 올해로 창단 390주년을 맞으며 가장 오래된 오케스트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2019

2019.10.25 / 금호아트홀 연세

2019.10.27 /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가을에 열리는 단 하나의 실내악 축제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이 올해 첫 포문을 연다.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연주자의 내한과 한국을 대표하며 해외에서도 그 위상을 떨치는 국내 연주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무대를 꾸미는 실내악 축제다. 다양한 구성과 화려한 출연진으로 높은 수준의 실내악을 경험할 수 있다.



레 비올롱 뒤 루아 <하이든과 모차르트>

2019.10.29 / LG아트센터



퀘벡의 숨은 보석, 실내악단 레 비올롱 뒤 루아의 첫 내한이다. 한국 관객과의 첫 만남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명곡이다. 특히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크 앙드레 아를랭이 모차르트의 마지막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하는 등 흥미로운 조합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November 11

프레조카쥬 발레 <프레스코화>

2019.11.1 / LG아트센터



클래식 발레의 우아함과 현대무용의 파격이 조화를 이룬 작품을 선보이며 프랑스 대표 안무가로 추앙받는 앙졸랭 프렐조카쥬의 발레단의 최신작이다. 클래식 발레 전공 후 현대무용가로 전향해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프렐조카쥬는 지난 30년간 5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련된 감각과 독창적인 해석으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2019.11.10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역동적이고 매혹적인 연주로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공연이다. 음악



감독 야니크 네제 세갱의 지휘 아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1부의 문을 열고, 2부에서는 대중적인 선율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야니크 네제 세갱 특유의 역동적인 해석으로 선보인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만의 생동감 가득한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이다.

장한나&드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2019.11.13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자 겸 첼리스트인 장한나가 지휘자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한국을 찾았다. 2017년부터 그가 상임지휘 및 예술감독으로 있는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다. 이번



공연은 세계 3대 콩쿠르에서 모두 입상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협연으로 진행된다.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2019.11.29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로 꼽히는 안네 소피 무터의 이번 리사이틀은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한 세계 투어의 일환이다. 한국에서 그가 선보일 프로그램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 4번과 5번 '봄'이다. 이들 곡은 대중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종종 같이 연주되곤 한다. 여기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인 9번 '크로이처'까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중 걸작만을 모았다.



회장사

일신방직

부회장사

교보생명보험

(주)노루홀딩스

동성코퍼레이션

벽산엔지니어링

삼성미술관(삼성문화재단)

삼양홀딩스

설원량문화재단

세아제강

(주)유니드

종근당

코오롱그룹

크라온-해태제과

파라다이스문화재단

풍산그룹

한미약품

한화갤러리아

현대해상화재보험

효성

이사사

고려당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주)두산

디자인하우스

사라

(주)신세계

이건홀딩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성자동차

LG 연암문화재단

SK SUPLEX추구협의회

Social Value 위원회

회원사

가나아트갤러리

강원랜드

경남스틸

공간그룹

광주요

금융투자협회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미쓰이화학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금호폴리캠

금호피앤비화학

금호홀딩스

기아자동차주식회사

나라삼양강속기

나라통상(주)

(주)나우피플

남이섬교육문화그룹(주)

네이버문화재단

네이처스퀘어미리코리아

(주)노루비케미칼

(주)노루오도코팅

(주)노루페인트

녹십자

뉴서울 컨트리클럽

뉴스킨 코리아(주)

뉴욕제과

다보성고미술전시관

(주)다진

대림산업

대성산업가스

대신증권

대우건설

(주)대창스틸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제분

(주)대한항공

더페이스샵코리아

도서출판 '삶과 꿈'

(주)돌실나이

동서식품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출판

동일 FnG(주)

동일방직

두산건설

두산연강재단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로얄&컴퍼니(주)

롯데렌터카

롯데문화재단

롯데백화점

르노삼성자동차

(주)마케팅규레이터 그룹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모나미

문화유산국민신탁

미디어월

법률사무소 C&B

베이글카페

보령제약(주)

분아이에프(주)

불보건설기계코리아

(주)브레드가든

빌모트 건축사무소 한국지사

삼성 SDI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서울병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주)삼양인터내셔널

삼익문화재단

삼일회계법인

(주)삼화에프앤에프

상암커뮤니케이션즈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예술기획

서울옥션

(주)성도GL

(주)세원특수금속

세일 ENS

세화예술문화재단

소니코리아

(주)송원문화재단

(주)스파크인터네쇼날

신라교역

신성씨에스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한카드

아시아나HDT(주)

아시아나에어포트(주)

아시아나항공

(주)아이피케이

(주)에스원

영앤익심 주식회사

오렌지라이프

오리콤

오비맥주 주식회사

오성정보통신

올림푸스한국(주)

와이에스케이미디어

우리종합금융

(주)우진

우진건설(주)

원마운트

월드리츠개발주식회사

원포시스(주)

유안타증권

유중아트센터

이건산업

이상일문화재단

인산죽염 주식회사

인터파크 큐브릿지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재단법인 송강재단

제우인베스트먼트(주)

제일기획

조선호텔

종이문화재단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

지앤히어링코리아

청림출판

컨슈머타임스

케이옥션

(주)코리아 투모로우

(주)코스모스약기

코카콜라음료

(주)크레디아프로젝트

(주)클라우드나인마케팅

태연건설

퍼시스

페르페티 반 엘 아시아퍼시픽

포스코 ICT

필룩스

(사)한국FPSB

한국 GM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항공사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무역협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임웨이

한국전력공사

한맥도시개발

한미회계법인

한빛문화재단

한세실업

(주)한진

(주)한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케미칼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현대차 정몽구 재단

(주)호텔롯데

(주)호텔롯데 면세점

호텔신라

홈플러스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힐라코리아

휴맥스

BMW 코리아(주)

BNK 경남은행

BNK 부산은행

CJ 문화재단

GA KOREA Outlet & Resort

GS 칼텍스 예울마루

(주)HK

HSD 엔진

IBK 기업은행

(주)KBS 교향악단

KB 국민은행

KDB생명

KEB 하나은행

KT

KT&G

LG 생활건강

LG 전자

LG 화학

LH

OCI

POSCO

SK 건설

SK 네트웍스

SK 에너지

SK 증권

SK 텔레콤

SK 해운

SM 삼한기업

TCC스틸

함께하는 메세나
회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19.5.21 ~ 2019.8.26)

금호건설



THE FACE SHOP
NATURAL STORY



MEDIAWILL



RESPECTED TRUSTED PROFESSIONAL SAMIL

Seoul Auction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GRAPHIC ARTS LEADER SINCE 1974 SUNGDOGL

세화예술문화재단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에어포트

OLYMPUS
Your Vision, Our Future



KOEN 한국남동발전



HYUNDAI
DEPARTMENT ST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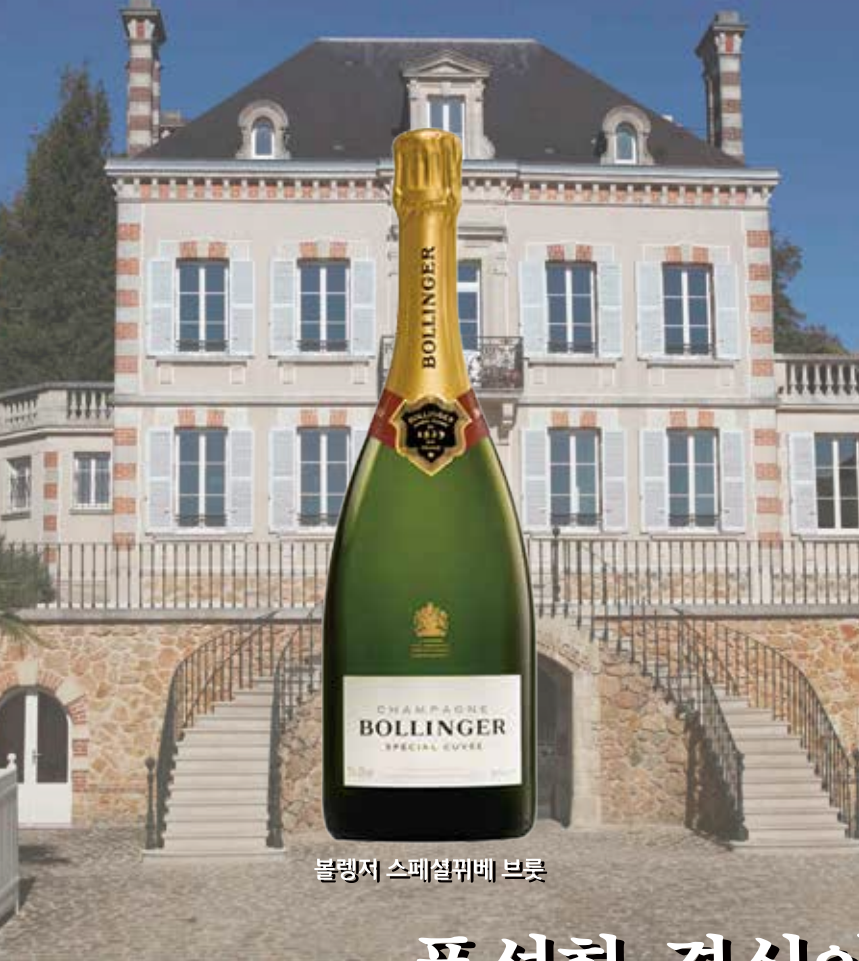
BNK 경남은행

BNK 부산은행



LG 생활건강

LG 연암문화재단



볼링저 스페셜뤼베 브룻



까티나 자파타 아르젠티노 말벡

풍성한 결실이 가득한 계절



카스텔지오콘도 브루넬로디몬탈치노



로버트몬다비 까베르네사비뇽